



# 2019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목차 contents

---

## I. 서론

1. 연구 개요	06
2. 조사 개요	08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요약	14
2. 주제별 분석 결과	20
3. 분석 결과 종합	43

## III.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1. [문화정책] 기초문화재단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언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50
2. [문화도시] 2020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조사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관련 이슈 트렌드에 대한 제언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57

3. [생활문화] 생활문화 이슈 - 문화권을 위하여 우지연 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84
4.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포럼 통계를 통해 본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교육 과제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89
5.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97
6. [공간운영] 기초문화재단의 지역문화공간운영 활성화 방향 이혜진 광명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104

## IV. 전문가 간담회

-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역할 -	114
--------------------	-----

## V. 부 록

- 지역문화재단 현황자료 -	134
-----------------	-----



# I. 서론

1. 연구 개요

2. 조사 개요

# 1 연구 개요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 지역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초단위의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이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관인 문화재단의 설립과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음
- ▶ 현재 전국 기초문화재단은 85개<sup>1)</sup>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역분권화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혹은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을 수용할 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임
- ▶ 기 설립된 또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에서 재단의 방향성 및 비전,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 또한 중앙 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 운영 과정 속에서 각 기초문화재단이 처한 현실은 천차만별이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나타나는 곳도 존재함
- ▶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기초문화재단의 이슈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재단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 기초문화재단의 흐름을 분석하고 공통의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재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공통의 이슈와 지역적 이슈 확인 필요
-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과 방향성 도출해야함
- ▶ 도출된 이슈키워드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과 사업의 설계 등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의 역할정립이 필요함

1)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 85개 설립 (2020년 01월 출범일 기준)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전국 기초문화재단 설립 기초단위 지역

#### 나) 시간적 범위

- 2020년 1월 ~ 2020년 3월

#### 다) 내용적 범위

-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수행에 대한 현황 확인
- 최근 변화하는 정책 흐름 속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사업적 이슈 도출
- 이슈의 대응을 위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과 방향성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 도출

### 2) 연구 방법

- 전국 기초문화재단 제출 자료 및 홈페이지 자료 등 공식 자료 검토 · 분석
- 업계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제언 도출

## 2

##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
  -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역문화재단 사업현황 분석
  -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역문화재단 이슈 확인 및 분석
  - 연차별 사업현황 및 이슈 변화 분석
- ▶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및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역할과 방향성 도출

### 나. 조사 방법

#### 1) 지역문화재단 사업현황

##### 가) 지역문화재단 제출 사업자료 분석

##### (1) 자료 취합

- 자료 요청 대상
  - 전국 82개 기초문화재단
- 자료 요청 목적
  - 재단별 수행했거나 예정 중인 사업영역을 비중 확인 및 상호비교를 통한 트렌드 및 이슈의 도출
- 자료 요청 범위
  - 2017년 ~ 2020년 재단에서 진행한 또는 진행 예정인 사업
  - 2017년 ~ 2019년 연초 사업계획(단위 사업 예산 포함), 연말 결산보고서 또는 결산자료(단위 사업 예산 포함)
  - 2020년 사업계획(단위 사업 예산 포함)
  - 사업 예산은 단위 사업 예산만 해당되며 세부 예산은 제공하지 않음



(2) 자료 분석

- 분석대상
  - 전국 82개 기초문화재단 중 자료를 제출한 36개 재단 자료
  - 38개 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사업계획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 출범 2개 재단 자료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 회수율 46.3%
- 분석방법
  - 데이터 정제 및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본 조사 기초 분석
  - 기초 데이터 분석의 해석 및 시각화

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 분석

(1) 자료 취합

- 자료 수집 대상
  - 전국 82개 기초문화재단 중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
- 자료 수집 목적
  - 재단별 수행했거나 예정 중인 사업영역을 비중 확인 및 상호비교를 통한 트렌드 및 이슈의 도출
- 자료 수집 범위
  -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범위 중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

(2) 자료 분석

- 분석대상
  - 전국 82개 기초문화재단 중 홈페이지 내 자료 수집이 가능한 17개 재단 자료
  - 회수율 20.7%

## I. 서론

- 분석방법
  - 데이터 정제 및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본 조사 기초 분석
  - 기초 데이터 분석의 해석 및 시각화

## 2) 지역문화재단 이슈

### 가) 지역문화재단 제출 포럼자료 분석

#### (1) 자료 취합

- 자료 요청 대상
  - 전국 82개 기초문화재단
- 자료 요청 목적
  - 재단별 수행했거나 예정중인 사업영역을 비중 확인 및 상호비교를 통한 트렌드 및 이슈의 도출
- 자료 요청 범위
  - 연구기관에서 작성·배포된 붙임자료를 활용한 포럼,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FGI 정리 자료
  - 지역문화재단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포럼,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FGI를 대상으로 재단 담당자의 자가 기입으로 진행함
  - 실행년도, 사업명, 주제, 연관키워드 선택, 특이사항 작성 등의 자료 요청
  - 연관키워드는 문화정책, 예술가(단체)지원, 공간운영,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인력 및 단체 양성, 문화(예술)콘텐츠, 전통문화, 지역축제, 도시재생, 문화도시, 교류협력, 문화 다양성, 문화향유 격차해소, 기타(직접작성)로 구성
  - 연관키워드는 중복선택이 가능

(2) 자료 분석

· 분석대상

- 전국 82개 기초문화재단 중 자료를 제출한 38개 재단 자료
- 회수율 46.3%

· 분석방법

- 데이터 정제 및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본 조사 기초 분석
- 기초 데이터 분석의 해석 및 시각화



2019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 II. 이슈 트렌드 분석결과

1. 분석 결과 요약
2. 주제별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 종합

# 1 분석 결과 요약

## 가. 분석 결과 총괄표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			포럼			사업			포럼		
	수 (건)	순위 (위)	비율 (%)	수 (건)	순위 (위)	비율 (%)	수 (건)	순위 (위)	비율 (%)	수 (건)	순위 (위)	비율 (%)
문화정책	57	7	4.8	40	1	18.4	60	10	4.2	60	1	18.5
예술가(단체)지원	62	6	5.2	19	5	8.7	83	7	5.8	19	8	5.9
공간운영	153	3	12.8	9	12	4.1	158	4	11.0	21	7	6.5
생활문화	35	10	2.9	15	6	6.8	61	9	4.2	30	3	9.3
문화예술교육	170	2	14.3	11	9	5.0	174	2	12.2	15	10	4.6
인력/단체 양성	34	11	2.9	12	8	5.5	45	11	3.1	14	11	4.3
문화(예술) 콘텐츠/프로그램	47	9	3.9	20	2	9.1	88	6	6.1	28	5	8.6
전통문화	12	15	1.0	8	13	3.7	16	13	1.1	5	14	1.5
지역축제	149	4	12.5	20	2	9.1	167	3	11.6	29	4	9
도시재생	7	17	0.6	3	15	1.4	7	17	0.5	9	13	2.8
문화도시	1	19	0.1	15	6	6.8	1	19	0.1	34	2	10.5
교류협력	13	13	1.1	20	2	9.1	13	16	0.9	25	6	7.7
문화다양성	5	18	0.4	11	9	5.0	7	17	0.5	18	9	5.6
문화향유	54	8	4.5	10	11	4.6	74	8	5.1	12	12	3.7
기타	11	16	0.9	6	14	2.7	15	14	1.0	5	14	1.5
공연전시	221	1	18.6	-	-	-	298	1	20.8	-	-	-
재단운영	127	5	10.7	-	-	-	132	5	9.2	-	-	-
예술단체 운영	13	13	1.1	-	-	-	15	14	1.0	-	-	-
관광	20	12	1.7	-	-	-	23	12	1.6	-	-	-
합계	1,191	-	100	219	-	100	1,437	-	100	324	-	100

# 1. 분석 결과 요약

2019년						종합(수)						종합(증감)			
사업			포럼			사업			포럼			사업		포럼	
수 (건)	순위 (위)	비율 (%)	수 (건)	순위 (위)	비율 (%)	수 (건)	순위 (위)	비율 (%)	수 (건)	순위 (위)	비율 (%)	증감 (%)	순위 (위)	증감 (%)	순위 (위)
59	9	4.0	91	1	12.9	176	9	4.3	191	1	15.2	4	16	128	12
73	7	4.9	39	9	5.5	218	6	5.3	77	7	6.2	18	12	105	14
187	3	12.6	41	8	5.8	498	3	12.1	71	8	5.7	22	11	356	3
55	10	3.7	47	6	6.7	151	10	3.7	92	6	7.4	57	4	213	7
214	2	14.4	35	11	5.0	558	2	13.5	61	11	4.9	26	9	218	6
27	11	1.8	36	10	5.1	106	11	2.6	62	10	5.0	-21	18	200	8
79	6	5.3	56	4	8.0	214	7	5.2	104	4	8.3	68	2	180	11
8	18	0.5	24	14	3.4	36	17	0.9	37	14	3	-33	19	200	8
162	4	10.9	44	7	6.3	478	4	11.5	93	5	7.5	9	14	120	13
9	17	0.6	54	5	7.7	23	18	0.6	66	9	5.3	29	8	1,700	1
17	14	1.1	88	2	12.5	19	12	0.5	137	2	11.0	1,600	1	487	2
11	16	0.7	73	3	10.4	37	16	0.9	118	3	9.5	-15	17	265	4
7	19	0.5	32	13	4.5	19	19	0.5	61	11	4.9	40	5	191	10
70	8	4.7	34	12	4.8	198	8	4.8	56	13	4.5	30	7	240	5
12	15	0.8	10	15	1.4	38	15	0.9	21	15	1.6	9	14	67	15
305	1	20.5	-	-	-	824	1	20.0	-	-	-	38	6	-	-
148	5	9.9	-	-	-	407	5	9.9	-	-	-	17	13	-	-
21	13	1.4	-	-	-	49	14	1.2	-	-	-	62	3	-	-
25	12	1.7	-	-	-	68	13	1.7	-	-	-	25	10	-	-
1,489	-	100	704	-	100	4,117	-	100	1,247	-	100	-	-	-	-

<표 II-1> 사업실행 및 이슈 분석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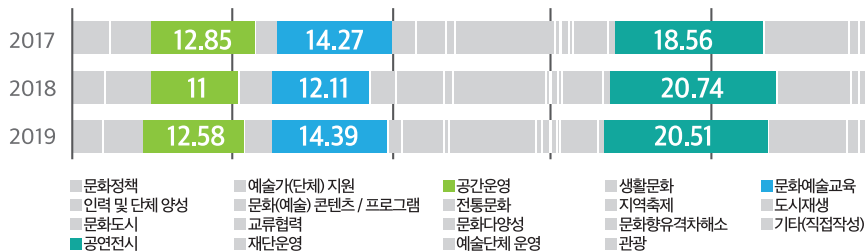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나. 실행사업 분석 결과 요약

-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문화재단의 실행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17년에 비해 2018년 실행사업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전체적으로 ‘공연전시’ 분야의 실행사업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20.0% / 824건)
  - 이어 ‘문화예술교육’(13.5% / 558건), ‘공간운영’(12.1% / 498건) 순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따르는 사업보다는 위탁 및 공모 중심의 실행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순위	공연전시 (221회 / 18.56%)	공연전시 (298회 / 20.74%)	공연전시 (305회 / 20.51%)
2순위	문화예술교육 (170회 / 14.27%)	문화예술교육 (174회 / 12.11%)	문화예술교육 (214회 / 14.39%)
3순위	공간운영 (153회 / 12.85%)	지역축제 (167회 / 11.62%)	공간운영 (187회 / 12.58%)

<표 II-2> 실행사업 연차별 순위 변화



[그림 II-1] 2017년~2019년 실행사업 순위

- ▶ 상대적으로 ‘문화정책’, ‘생활문화’, ‘문화다양성’, ‘인력 및 단체양성’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실행사업의 비율은 높지 않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문화정책	생활문화	인력 및 단체 양성	문화다양성
2017	19개 중 7위 (57건 / 4.79%)	19개 중 10위 (35건 / 2.94%)	19개 중 11위 (34건 / 2.85%)	19개 중 18위 (5건 / 0.42%)
2018	19개 중 10위 (60건 / 4.18%)	19개 중 9위 (61건 / 4.24%)	19개 중 11위 (45건 / 3.13%)	19개 중 17위 (7건 / 0.49%)
2019	19개 중 9위 (59건 / 3.97%)	19개 중 10위 (55건 / 3.70%)	19개 중 11위 (27건 / 1.82%)	19개 중 19위 (7건 / 0.47%)

&lt;표 II-3&gt;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연차별 순위 변화

- ▶ 실행사업의 연도별 변화추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문화도시’ 관련 실행사업의 증가로 2017년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적 관심 증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문화도시와 관련된 실행사업수는 많지 않은 반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영역임
  - 문화도시 관련 실행사업은 전체 19개로 종합순위에서 19위에 올랐으나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문화도시 선정 도시들의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문화도시와 관련된 실행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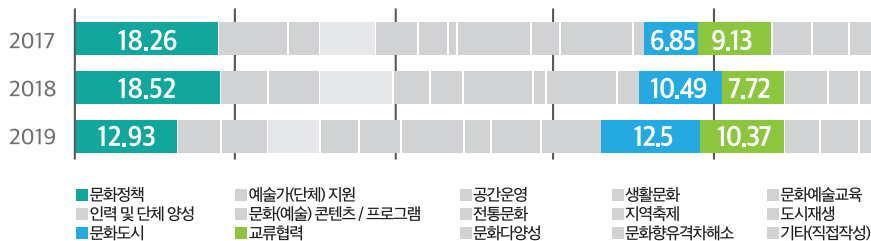
- ▶ 지역문화재단의 이슈 트렌드는 관심도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 ▶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포럼은 지역문화나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공유와 지역적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포럼 주제의 증가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
- ▶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은 2017년 219건에서 2019년 7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및 사업에 대한 지역적 협의 과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 최근 3년간 지역문화재단의 이슈 트렌드는 ‘문화정책’-‘문화도시’-‘교류협력’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지역문화재단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포럼 결과를 보면 ‘문화정책’(15.2% / 191회)과 관련된 포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어 ‘문화도시’(10.99% / 137회)와 ‘교류협력’(9.46% / 118회)이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문화에 있어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 지역문화에 있어 가장 관심도가 높은 ‘문화도시’ 또한 중요한 키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 반면 3년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주제는 ‘도시재생’으로 2017년 대비 2019년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재생’이라는 주제가 지역문화에서 이슈가 된 것은 맞으나 포럼을 진행한 횟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제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라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정책’과 관련된 포럼은 3년 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감에 있어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 이외 전체 포럼 진행 횟수에 있어 ‘교류협력’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간 문화예술적 교류 등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짐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순위	문화정책 (40회/18.26%)	문화정책 (60회/18.52%)	문화정책 (91회/12.93%)
2순위	문화(예술)콘텐츠/ 지역축제 / 교류협력 (각 20회/9.13%)	문화도시 (34회/10.49%)	문화도시 (88회/12.5%)
3순위		생활문화 (30회/9.26%)	교류협력 (73회/10.37%)

<표 II-4> 연도별 포럼 주제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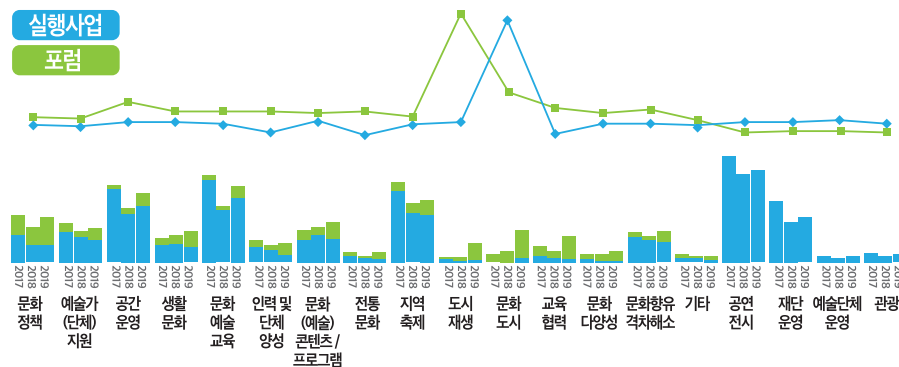
[그림 II-2] 2017년~2019년 포럼 주제 순위

-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된 포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최근 3년 간 가장 주된 지역적 이슈는 ‘문화정책’과 ‘문화도시’라 볼 수 있음
- 특히 ‘문화도시’와 관련된 주제는 지역적인 관심도가 급속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라. 이슈 트렌드와 실행사업의 상관관계

▶ 최근 3년 간 지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문화도시’와 관련된 포럼과 실행사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문화도시 사업 선정 이후 문화도시사업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등 별도의 독립 조직 구성)
- 반면 ‘문화정책’ 영역의 경우 포럼 등을 통한 논의의 과정에 비해 실행사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간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문화재단의 주된 실행사업은 ‘공연전시’, ‘공간운영’, ‘문화예술교육’ 등 일부 영역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11-3] 연차별 실행사업 및 포럼 변화 추이

## 2 주제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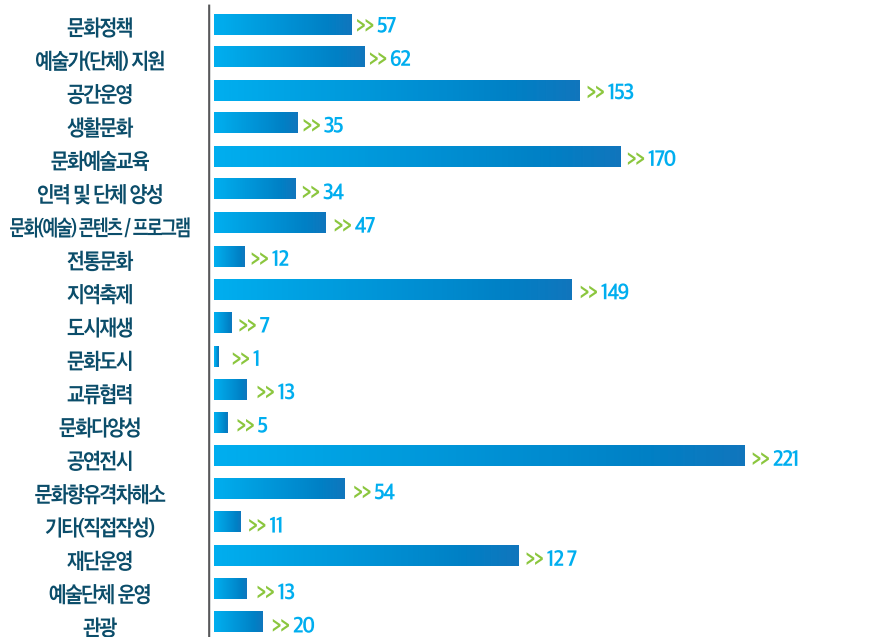
### 가. 실행사업 분석 결과

#### 1) 2017년 실행사업

- ▶ 2017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의 수는 1,191개로 나타남
- ▶ 그 중 실행 사업 1순위는 '공연전시'가 22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문화예술 교육'이 170개 2순위, '공간운영'이 153개로 3순위로 나타남

사업명	실행수	순위	비율 (%)
문화정책	57	7	4.79
예술가(단체)지원	62	6	5.21
공간운영	153	3	12.85
생활문화	35	10	2.94
문화예술교육	170	2	14.27
인력 및 단체 양성	34	11	2.85
문화(예술)콘텐츠 / 프로그램	47	9	3.95
전통문화	12	15	1.01
지역축제	149	4	12.51
도시재생	7	17	0.59
문화도시	1	19	0.08
교류협력	13	13	1.09
문화다양성	5	18	0.42
공연전시	221	1	18.56
문화향유격차해소	54	8	4.53
기타(직접작성)	11	16	0.92
재단운영	127	5	10.66
예술단체 운영	13	13	1.09
관광	20	12	1.68
<b>합계</b>	<b>1,191</b>		<b>100</b>

<표 II -5> 2017년 실행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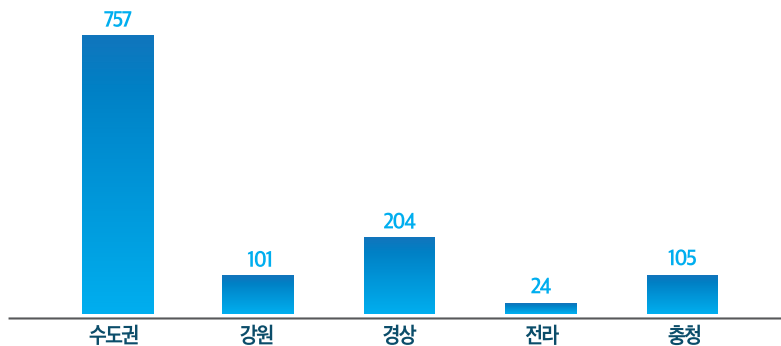
[그림 II-4] 2017년 실행사업 현황

- ▶ 2017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 사업계획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75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지역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실행사업은 '경상' 204개, '충청' 105개, '강원' 101개, '전라' 24개 순으로 나타남
- ▶ 지역별 실행사업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공연전시' 124개(16.4%), 강원 '지역축제' 16개 (15.8%), 경상 '공연전시' 69개(33.8%), 전라 '재단운영' 5개(20.8%), 충청 '지역축제' 24개 (22.9%)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공연전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축제'와 관련된 실행 사업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사업명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36	4.8	7	2	2.0	9	7	3.4	9	3	12.4	3	9	8.6	6
예술가(단체)지원	33	4.4	8	8	7.8	6	4	1.9	10	4	16.7	2	13	12.4	3
공간운영	108	14.3	3	15	14.9	2	17	8.3	5	2	8.3	4	11	10.5	5
생활문화	25	3.3	10	1	1.0	13	3	1.5	11	-	-	-	6	5.7	7
문화예술교육	115	15.2	2	15	14.9	2	25	12.3	2	2	8.3	4	13	12.4	3
인력 및 단체 양성	16	2.1	11	5	5.0	8	10	4.9	7	1	4.2	7	2	1.8	10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	44	5.8	6	1	1.0	13	1	0.5	13	1	4.2	7	-	-	-
전통문화	10	1.3	13	2	2.0	9	-	-	-	-	-	-	-	-	-
지역축제	86	11.4	4	16	15.8	1	21	10.3	4	2	8.3	4	24	22.9	1
도시재생	5	0.7	16	-	-	-	-	-	-	1	4.2	7	1	0.9	11
문화도시	-	-	-	1	1.0	13	-	-	-	-	-	-	-	-	-
교류협력	1	0.1	18	-	-	-	11	5.4	6	1	4.2	7	-	-	-
문화다양성	4	0.4	17	-	-	-	1	0.5	13	-	-	-	-	-	-
공연전시	124	16.4	1	10	9.9	5	69	33.8	1	1	4.2	7	17	16.2	2
문화향유격차해소	30	4.0	9	12	11.9	4	8	3.9	8	1	4.2	7	3	2.9	9
기타(직접작성)	9	1.2	15	2	2.0	9	-	-	-	-	-	-	-	-	-
재단운영	85	11.2	5	8	7.8	6	24	11.8	3	5	20.8	1	5	4.8	8
예술단체 운영	10	1.3	13	2	2.0	9	-	-	-	-	-	-	1	0.9	11
관광	16	2.1	11	1	1.0	13	3	1.5	11	-	-	-	-	-	-
합계	757	100	-	101	100	-	204	100	-	24	100	-	105	100	-

<표 II-6> 2017년 지역별 실행사업 현황



[그림 II-5] 2017년 지역별 실행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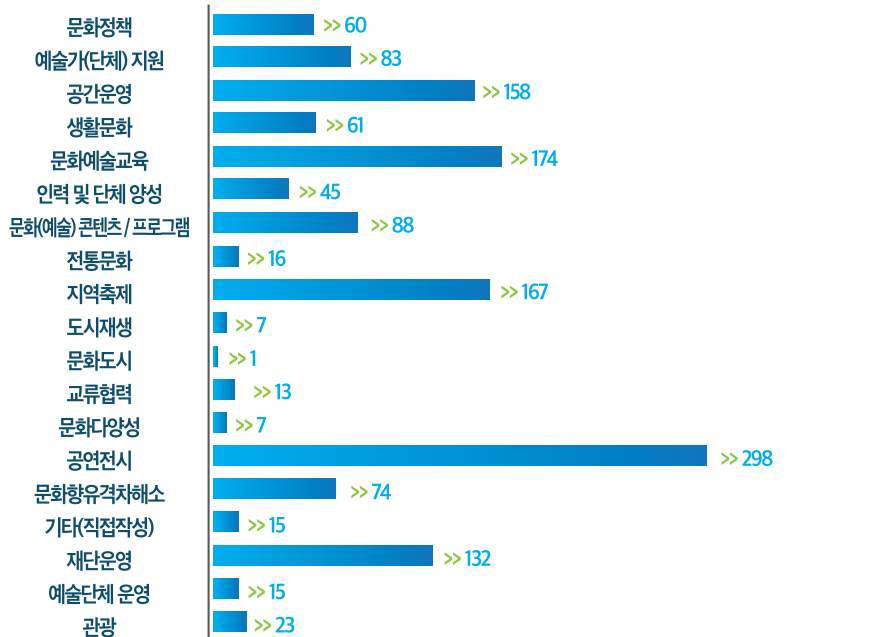
## 2) 2018년 실행사업

- ▶ 2018년 전국 지역문화재단 사업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의 수는 1,437개로 나타남
- ▶ 그 중 실행 사업 1순위는 ‘공연전시’가 29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문화예술 교육’이 174개 2순위, ‘지역축제’가 167개로 3순위로 나타남
  - 2017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2017년에 비해 ‘지역축제’ 관련 실행사업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되었던 지역축제들이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사업명	실행수	순위	비율 (%)
문화정책	60	10	4.18
예술가(단체)지원	83	7	5.78
공간운영	158	4	11.0
생활문화	61	9	4.24
문화예술교육	174	2	12.11
인력 및 단체 양성	45	11	3.13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88	6	6.12
전통문화	16	13	1.11
지역축제	167	3	11.62
도시재생	7	17	0.49
문화도시	1	19	0.07
교류협력	13	16	0.90
문화다양성	7	17	0.49
공연전시	298	1	20.74
문화향유격차해소	74	8	5.15
기타(직접작성)	15	14	1.04
재단운영	132	5	9.19
예술단체 운영	15	14	1.04
관광	23	12	1.60
<b>합계</b>	<b>1,437</b>		<b>100</b>

&lt;표 II -7&gt; 2018년 실행사업 현황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그림 II-6] 2018년 실행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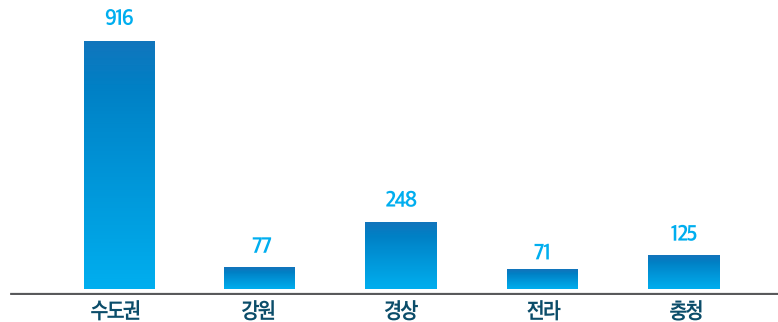
- ▶ 2018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 사업계획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916개로 가장 많은 실행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 이어 '경상' 248개, '충청' 125개, '강원' 77개, '전라' 71개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 실행사업의 순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각 지역의 실행사업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공연전시' 178개 19.4%, 강원 '지역축제' 12개 15.6%, 경상 '공연전시' 82개 33.2%, 전라 '예술가(단체)지원' 11개로 15.5%, 충청 '공연전시' 23개 18.4%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전라권과 충청권의 사업 순위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음
  - 여전히 '공연전시'를 진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축제 또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2. 주제별 분석 결과

사업명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31	3.4	10	3	3.9	9	6	2.4	11	9	12.7	2	11	8.8	6
예술가(단체)지원	39	4.3	8	10	13.0	2	7	2.8	7	11	15.5	1	16	12.8	2
공간운영	115	12.6	3	5	6.5	7	24	9.7	4	6	8.5	6	8	6.4	8
생활문화	36	3.9	9	5	6.5	7	7	2.8	7	3	4.2	9	10	8.0	7
문화예술교육	121	13.2	2	8	10.4	4	23	9.3	5	7	9.9	5	15	12.0	3
인력 및 단체 양성	30	3.3	11	1	1.3	12	5	2.0	12	5	7.0	7	4	3.2	9
문화(예술)콘텐츠 / 프로그램	63	6.9	6	3	3.9	9	15	6.0	6	4	5.6	8	3	2.4	10
전통문화	14	1.5	13	2	2.5	11	-	-	-	-	-	-	-	-	-
지역축제	109	11.9	4	12	15.6	1	28	11.3	3	3	4.2	9	15	12.0	3
도시재생	4	0.4	15	1	1.3	12	-	-	-	1	1.4	11	1	0.8	11
문화도시	-	-	-	-	-	-	-	-	-	1	1.4	11	-	-	-
교류협력	3	3	16	1	1.3	12	7	2.8	7	1	1.4	11	1	0.8	11
문화다양성	3	0.3	16	1	1.3	12	1	0.4	14	1	1.4	11	1	0.8	11
공연전시	178	19.4	1	7	9.1	5	82	33.2	1	8	11.3	4	23	18.4	1
문화향유격차해소	52	5.7	7	10	13.0	2	7	2.8	7	1	1.4	11	4	3.2	9
기타(직접작성)	13	1.4	14	1	1.3	12	-	-	-	1	1.4	11	-	-	-
재단운영	72	7.9	5	6	7.8	6	33	13.3	2	9	12.7	2	12	9.6	5
예술단체 운영	13	1.4	15	1	1.3	12	-	-	-	-	-	-	1	0.8	11
관광	20	2.2	12	-	-	-	3	1.2	13	-	-	-	-	-	-
합계	916	100	-	77	100	-	248	100	-	71	100	-	125	100	-

<표 II-8> 2018년 지역별 실행사업 현황



[그림 II-7] 2018년 지역별 실행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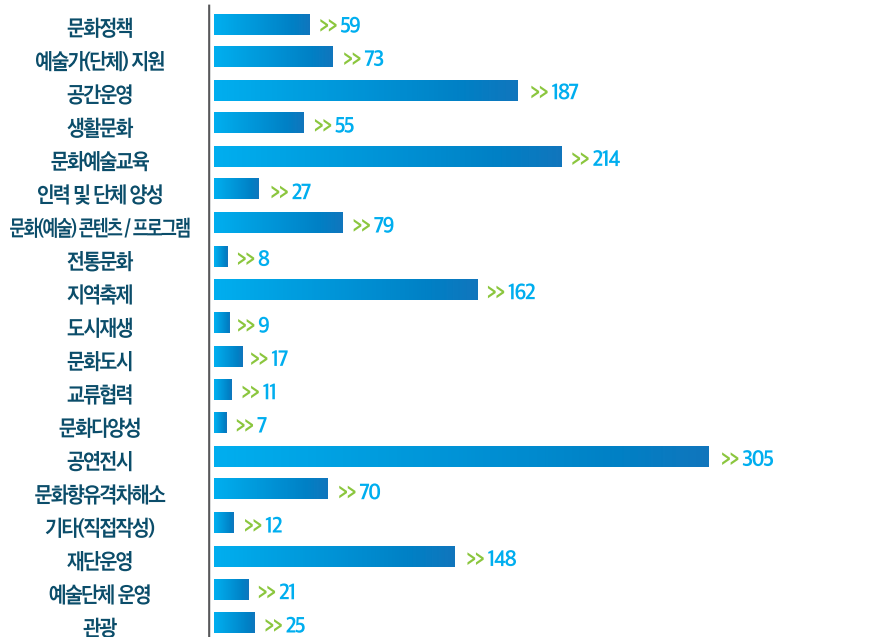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3) 2019년 실행사업

- ▶ 2019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의 수는 1,489개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그 중 실행사업 1순위는 ‘공연전시’가 305개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문화예술교육’이 214개 2순위, ‘공간운영’이 187개로 3순위로 나타남
- 2018년 3순위 ‘지역축제’가 ‘공간운영’으로 변동된 것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실행사업의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업명	실행수	순위	비율 (%)
문화정책	59	9	3.97
예술가(단체)지원	73	7	4.91
공간운영	187	3	12.58
생활문화	55	10	3.70
문화예술교육	214	2	14.39
인력 및 단체 양성	27	11	1.82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79	6	5.31
전통문화	8	18	0.54
지역축제	162	4	10.8
도시재생	9	17	0.61
문화도시	17	14	1.14
교류협력	11	16	0.74
문화다양성	7	19	0.47
공연전시	305	1	20.51
문화향유격차해소	70	8	4.71
기타(직접작성)	12	15	0.81
재단운영	148	5	9.95
예술단체 운영	21	13	1.41
관광	25	12	1.68
<b>합계</b>	<b>1,489</b>		<b>100</b>

<표 II-9> 2019년 실행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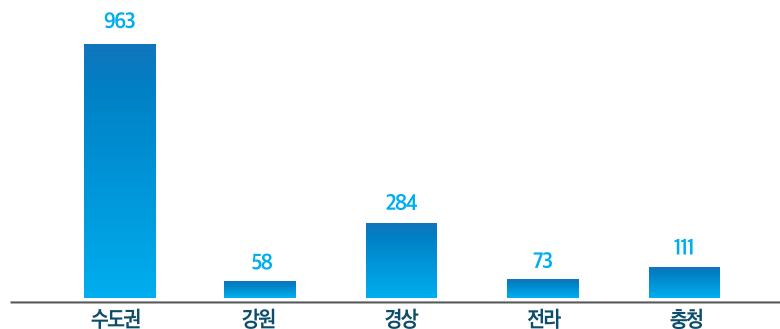
[그림 II-8] 2019년 실행사업 현황

- ▶ 2019년 지역문화재단 사업관련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963개로 가장 많은 실행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 이어 '경상' 284개, '충청' 111개, '전라' 73개, '강원' 58개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강원권의 실행사업이 감소하여 강원권의 실행사업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이전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 각 지역의 실행사업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공연전시' 188개 19.5%, 강원 '예술가(단체)지원' 9개 15.7%, 경상 '공연전시' 79개 27.8%, 전라 '공연전시' 11개로 15.1%, 충청 '공연전시' 23개 20.8%로 나타남
  - 강원권의 '예술가(단체)지원'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공연전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과 2018년의 결과와 동일함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사업명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29	3.0	10	5	8.6	5	6	2.1	8	10	13.7	3	9	8.1	6
예술가(단체)지원	40	4.2	9	9	15.7	1	5	1.8	11	8	11.0	4	11	9.9	5
공간운영	135	14.0	2	6	10.3	3	31	10.9	4	7	9.6	6	8	7.2	7
생활문화	42	4.4	8	1	1.7	12	6	2.1	8	3	4.0	8	3	2.7	9
문화예술교육	133	13.8	3	8	13.8	2	51	18.0	2	8	11.0	4	14	12.6	3
인력 및 단체 양성	18	1.9	12	3	5.2	8	2	0.6	14	2	2.7	9	2	1.8	10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	57	5.9	6	2	3.4	11	15	5.3	6	1	1.4	12	4	3.6	8
전통문화	8	0.8	14	-	-	-	-	-	-	-	-	-	-	-	-
지역축제	106	11.0	4	5	8.6	5	34	12.0	3	1	1.4	12	16	14.4	2
도시재생	8	0.8	14	-	-	-	-	-	-	1	1.4	12	-	-	-
문화도시	3	0.3	18	3	5.2	8	6	2.1	8	5	6.8	7	-	-	-
교류협력	2	0.2	19	1	1.7	12	5	1.8	11	2	2.7	9	1	0.9	12
문화다양성	5	0.5	17	1	1.7	12	-	-	-	-	-	-	1	0.9	12
공연전시	188	19.5	1	4	6.9	7	79	27.8	1	11	15.1	1	23	20.8	1
문화향유격차해소	51	5.3	7	6	10.3	3	9	3.2	7	2	2.7	9	2	1.8	10
기타(직접작성)	6	0.6	16	-	-	-	1	0.3	15	1	1.4	12	4	3.6	8
재단운영	92	9.6	5	3	5.2	8	30	10.6	5	11	15.1	1	12	10.8	4
예술단체 운영	18	1.9	12	1	1.7	12	1	0.3	15	-	-	-	1	0.9	12
관광	22	2.3	11	-	-	-	3	1.1	13	-	-	-	-	-	-
합계	963	100	-	58	100	-	284	100	-	73	100	-	111	100	-

<표 II-10> 2019년 지역별 실행사업 현황



[그림 II-9] 2019년 지역별 실행사업 현황

## 4) 연차별 실행사업 변화 추이

-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실행사업의 변화추이를 보면 ‘공연전시’사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도 및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함
- 이외 문화예술교육, 공간운영, 지역축제와 관련된 실행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문화정책, 인력 및 단체 양성,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실행사업은 적게 진행 되었으며, 순위 또한 1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음

사업명	2017			2018			2019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57	4.79	7(-)	60	4.18	10(↓3)	59	3.97	9(↑1)
예술가(단체)지원	62	5.21	6(-)	83	5.78	7(↓1)	73	4.91	7(-)
공간운영	153	12.85	3(-)	158	11.0	4(↓1)	187	12.58	3(↑1)
생활문화	35	2.94	10(-)	61	4.24	9(↑1)	55	3.70	10(↓1)
문화예술교육	170	14.27	2(-)	174	12.11	2(-)	214	14.39	2(-)
인력 및 단체 양성	34	2.85	11(-)	45	3.13	11(-)	27	1.82	11(-)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	47	3.95	9(-)	88	6.12	6(↑3)	79	5.31	6(-)
전통문화	12	1.01	15(-)	16	1.11	13(↑2)	8	0.54	18(↓5)
지역축제	149	12.51	4(-)	167	11.62	3(↑1)	162	10.8	4(↓1)
도시재생	7	0.59	17(-)	7	0.49	17(-)	9	0.61	17(-)
문화도시	1	0.08	19(-)	1	0.07	19(-)	17	1.14	14(↑5)
교류협력	13	1.09	13(-)	13	0.90	16(↓3)	11	0.74	16(-)
문화다양성	5	0.42	18(-)	7	0.49	17(↑1)	7	0.47	19(↓2)
<b>공연전시</b>	<b>221</b>	<b>18.56</b>	<b>1(-)</b>	<b>298</b>	<b>20.74</b>	<b>1(-)</b>	<b>305</b>	<b>20.51</b>	<b>1(-)</b>
문화향유격차해소	54	4.53	8(-)	74	5.15	8(-)	70	4.71	8(-)
기타(직접작성)	11	0.92	16(-)	15	1.04	14(↑2)	12	0.81	15(↓1)
재단운영	127	10.66	5(-)	132	9.19	5(-)	148	9.95	5(-)
예술단체 운영	13	1.09	13(-)	15	1.04	14(↓1)	21	1.41	13(↑1)
관광	20	1.68	12(-)	23	1.60	12(-)	25	1.68	12(-)
<b>합계</b>	<b>1,191</b>	<b>100</b>		<b>1,437</b>	<b>100</b>		<b>1,489</b>	<b>100</b>	

&lt;표 II-11&gt; 연차별 실행사업 변화 추이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 전체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실행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공간과 관련된 사업, 중앙 정부 및 상위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지원)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 3년간 실행사업 순위의 변화추이를 보면 1순위 ‘공연전시’와 2순위 ‘문화예술교육’은 순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운영’과 ‘지역축제’의 경우 다소 순위의 변화는 있으나 3순위와 4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공연전시’와 ‘문화예술교육’, ‘공간운영’, ‘지역축제’가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주력 사업 영역임을 의미함
  - 위 4개 실행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8.19%, 2018년 55.47%, 2019년 58.28%로 매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2017		2108		2019		증가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증감	순위
문화정책	57	4.8	60	4.2	59	4.0	4	16
예술가(단체)지원	62	5.2	83	5.8	73	4.9	18	12
공간운영	153	12.8	158	11.0	187	12.6	22	11
생활문화	35	2.9	61	4.2	55	3.7	57	4
문화예술교육	170	14.3	174	12.2	214	14.4	26	9
인력/단체 양성	34	2.9	45	3.1	27	1.8	-21	18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47	3.9	88	6.1	79	5.3	68	2
전통문화	12	1.0	16	1.1	8	0.5	-33	19
지역축제	149	12.5	167	11.6	162	10.9	9	14
도시재생	7	0.6	7	0.5	9	0.6	29	8
문화도시	1	0.1	1	0.1	17	1.1	1,600	1
교류협력	13	1.1	13	0.9	11	0.7	-15	17
문화다양성	5	0.4	7	0.5	7	0.5	40	5
문화향유	54	4.5	74	5.1	70	4.7	30	7
기타	11	0.9	15	1.0	12	0.8	9	14
공연전시	221	18.6	298	20.8	305	20.5	38	6
재단운영	127	10.7	132	9.2	148	9.9	17	13
예술단체 운영	13	1.1	15	1.0	21	1.4	62	3
관광	20	1.7	23	1.6	25	1.7	25	10
합계	1,191	100	1,437	100	1,489	1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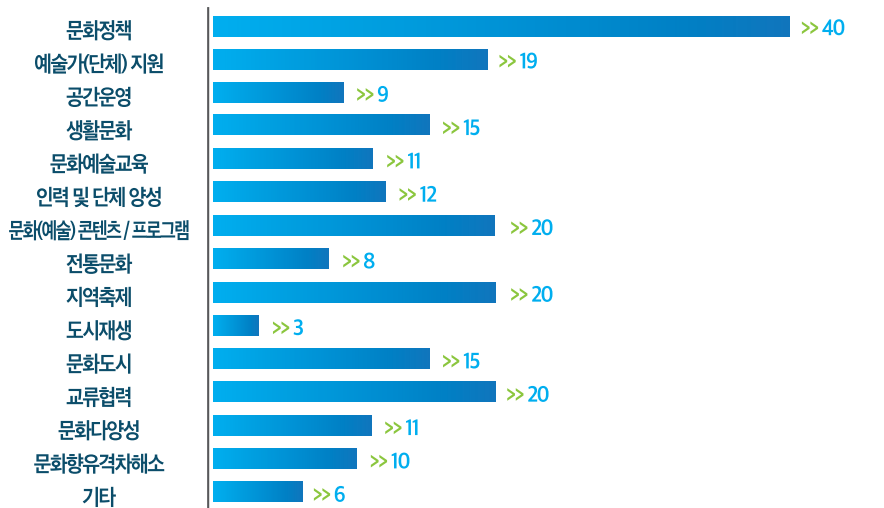
<표 II-12> 사업실행 및 이슈 분석 총괄표

- ▶ 3년간 실행사업의 증가폭을 보면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이슈화 된 것에 비해 실행사업이 적은 것은 선정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이 최근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외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과 ‘예술단체 운영’ 관련 실행사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예술단체 운영’ 관련 실행사업의 증가는 지역문화재단이 신설되면서 지자체에서 운영되었던 예술단체가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나.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1) 2017년 이슈 트렌드

- ▶ 2017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을 분석한 결과, 총 포럼의 수는 219개로 나타남
- ▶ 2017년 진행된 포럼 중 ‘문화정책’이 40개로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교류협력’, ‘지역축제’,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이 20개로 2순위로 나타남



[그림 II-10] 2017년 포럼 진행 현황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사업명	실행 수	순위	비율 (%)
문화정책	40	1	18.26
예술가(단체)지원	19	5	8.68
공간운영	9	12	4.11
생활문화	15	6	6.85
문화예술교육	11	9	5.02
인력 및 단체 양성	12	8	5.48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20	2	9.13
전통문화	8	13	3.65
지역축제	20	2	9.13
도시재생	3	15	1.37
문화도시	15	6	6.85
교류협력	20	2	9.13
문화다양성	11	9	5.02
문화향유격차해소	10	11	4.57
기타(직접작성)	6	14	2.74
<b>합계</b>	<b>219</b>		<b>100</b>

<표 II-13> 2017년 포럼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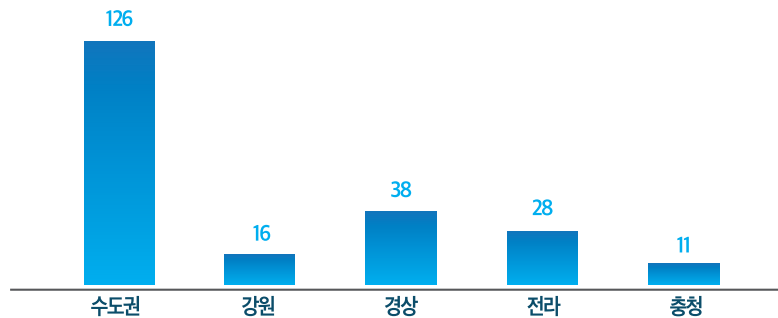
- ▶ 2017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포럼의 수가 12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 진행된 포럼이 가장 많은 것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임
- ▶ 이어 다른 지역은 '경상' 38개, '전라' 28개, '강원' 16개, '충청' 11개 순으로 나타남
- ▶ 각 지역 포럼 수의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문화정책' 19개 15.0%, 강원 '지역축제' 8개 50.0%, 경상 '문화정책' 6개 15.8%, 전라 '문화정책' 12개로 42.8%, 충청 '예술가(단체) 지원' 5개 45.5%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주제의 포럼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충청권 또한 '예술가(단체)지원'에 이어 문화정책과 관련된 포럼이 2순위로 나타남
  - 반면 강원권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문화정책'이 다른 주제에 비해 다소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음



## 2. 주제별 분석 결과

사업명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19	15.08	1	1	6.25		6	15.81	1	12	42.86	1	2	18.18	2
예술가(단체)지원	8	6.35	6	1	6.25		4	10.53	2	1	3.57	5	5	45.46	1
공간운영	6	4.76	9	-	-	-	3	7.89	5	-	-	-	-	-	-
생활문화	10	7.94	4	-	-	-	3	7.89	5	1	3.57	5	1	9.09	3
문화예술교육	9	7.14	5	-	-	-	2	5.26	9	-	-	-	-	-	-
인력 및 단체 양성	7	7.56	7	2	12.50		2	5.26	9	1	3.57	5	-	-	-
문화(예술)콘텐츠 / 프로그램	15	11.90	2	1	6.25		3	7.89	5	1	3.57	5	-	-	-
전통문화	5	3.97	11	-	-	-	1	2.63	12	2	7.14	4	-	-	-
지역축제	7	5.56	7	8	50.00		4	10.53	2	-	-	-	1	9.09	3
도시재생	3	2.38	14	-	-	-	-	-	-	-	-	-	-	-	-
문화도시	5	3.97	11	3	18.75	2	3	7.89	5	4	14.29	3	-	-	-
교류협력	13	10.32	3	-	-	-	1	2.63	12	5	17.86	2	1	9.09	3
문화다양성	9	7.14	5	-	-	-	-	-	-	1	3.57	5	1	9.09	3
문화향유격차해소	6	4.76	9	-	-	-	4	10.53	2	-	-	-	-	-	-
기타(직접작성)	4	3.17	13	-	-	-	2	5.26	9	-	-	-	-	-	-
합계	126	100	-	16	100	-	38	100	-	28	100	-	11	100	-

<표 II-14> 2017년 지역별 포럼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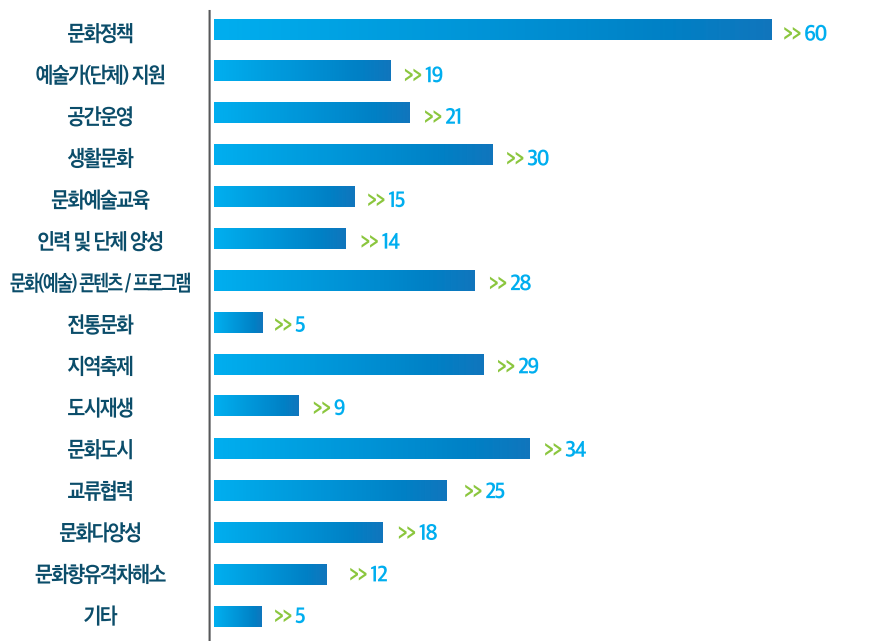


[그림 II-11] 2017년 지역별 포럼 진행 현황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2) 2018년 이슈 트렌드

- ▶ 2018 전국 지역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을 분석한 결과, 총 포럼의 수는 324개로 나타남
  - 2017년에 비해 약 48% 증가했으며, ‘생활문화’(2배)와 ‘문화도시’(2.3배), ‘공간운영’(2.3배)을 주제로 한 포럼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전체적으로 포럼이 증가한 가운데 ‘전통문화’ 관련 주제의 포럼은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기타 제외)
- ▶ 그 중 포럼 1순위는 ‘문화정책’이 6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문화도시’가 34개로 2순위, ‘생활문화’가 30개로 3순위로 나타남



[그림 II-12] 2018년 포럼 진행 현황

## 2. 주제별 분석 결과

사업명	실행수	순위	비율 (%)
문화정책	60	1	18.52
예술가(단체)지원	19	8	5.86
공간운영	21	7	6.48
생활문화	30	3	9.26
문화예술교육	15	10	4.63
인력 및 단체 양성	14	11	4.32
문화(예술)콘텐츠 / 프로그램	28	5	8.64
전통문화	5	14	1.54
지역축제	29	4	8.95
도시재생	9	13	2.78
문화도시	34	2	10.49
교류협력	25	6	7.72
문화다양성	18	9	5.56
문화향유격차해소	12	12	3.70
기타(직접작성)	5	14	1.54
<b>합계</b>	<b>324</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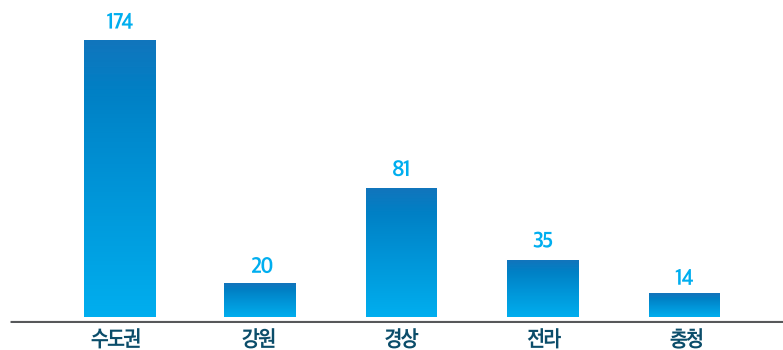
<표 II-15> 2018년 포럼 진행 현황

- ▶ 지역별로 진행된 포럼은 수도권이 17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이어 다른 지역은 ‘경상’ 81개, ‘전라’ 35개, ‘강원’ 20개, ‘충청’ 14개 순으로 나타남
- ▶ 각 지역 포럼 수의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문화정책’ 28개 16.1%, 강원 ‘지역축제’ 9개 45.0%, 경상 ‘문화정책’ 12개 14.8%, 전라 ‘문화정책’ 13개로 37.1%, 충청 ‘예술가(단체)지원’ 5개 35.7%로 나타남
- 지역별로 2017년과 동일한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정책’ 관련 포럼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사업명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28	16.11	1	4	20.00	2	12	14.82	1	13	37.14	1	3	21.43	2
예술가(단체)지원	9	5.17	8	-	-	-	5	6.17	7	-	-	-	5	35.73	1
공간운영	13	7.47	6	-	-	-	6	7.41	6	1	2.86	6	1	7.14	3
생활문화	18	10.34	3	-	-	-	8	9.88	4	4	11.42	3	-	-	-
문화예술교육	7	4.02	10	-	-	-	7	8.64	5	-	-	-	1	7.14	3
인력 및 단체 양성	7	4.02	10	4	20.00	2	3	3.71	10	-	-	-	-	-	-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	16	9.20	5	2	10.00	4	9	11.11	3	1	2.86	6	-	-	-
전통문화	3	1.72	15	-	-	-	1	1.23	14	-	-	-	1	7.14	3
지역축제	7	4.02	10	9	45.00	1	12	14.82	1	1	2.86	6	-	-	-
도시재생	4	2.30	14	-	-	-	4	4.94	9	1	2.86	6	-	-	-
문화도시	19	10.92	2	1	5.00	5	5	6.17	7	8	22.86	2	1	7.14	3
교류협력	18	10.34	3	-	-	-	3	3.70	10	3	8.57	4	1	7.14	3
문화다양성	12	6.90	7	-	-	-	3	3.70	10	3	8.57	4	-	-	-
문화향유격차해소	8	4.60	9	-	-	-	3	3.70	10	-	-	-	1	7.14	3
기타(직접작성)	5	2.87	13	-	-	-	-	-	-	-	-	-	-	-	-
<b>합계</b>	<b>174</b>	<b>100</b>	<b>-</b>	<b>20</b>	<b>100</b>	<b>-</b>	<b>81</b>	<b>100</b>	<b>-</b>	<b>35</b>	<b>100</b>	<b>-</b>	<b>14</b>	<b>100</b>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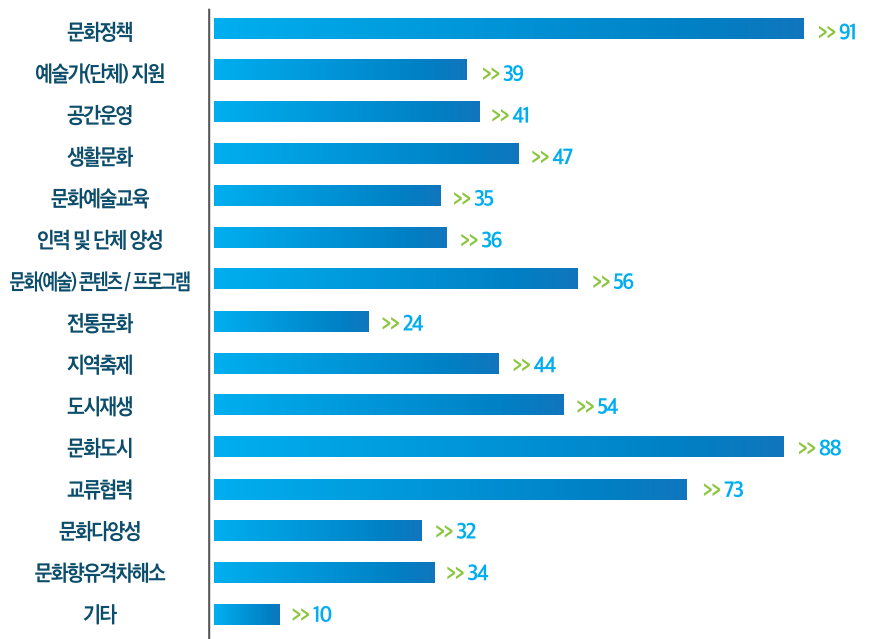
<표 II-16> 2018년 지역별 포럼 진행 현황



[그림 II-13] 2018년 지역별 포럼 진행 현황

## 3) 2019년 포럼

- ▶ 2019년 전국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은 총 704개임
  - 2018년의 324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재생’, ‘문화도시’, ‘교류협력’과 관련된 포럼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 전체 포럼 1순위는 ‘문화정책’이 9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문화도시’가 88개로 2순위, ‘교류협력’이 73개로 3순위로 나타남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는 2018년에 이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류협력’이 전 보다 상승한 3순위로 나타났음



[그림 II-14] 2019년 포럼 진행 현황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사업명	실행 수	순위	비율 (%)
문화정책	91	1	12.93
예술가(단체)지원	39	9	5.54
공간운영	41	8	5.82
생활문화	47	6	6.68
문화예술교육	35	11	4.97
인력 및 단체 양성	36	10	5.11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56	4	7.95
전통문화	24	14	3.41
지역축제	44	7	6.25
도시재생	54	5	7.67
문화도시	88	2	12.50
교류협력	73	3	10.37
문화다양성	32	13	4.55
문화향유격차해소	34	12	4.83
기타(직접작성)	10	15	1.42
<b>합계</b>	<b>704</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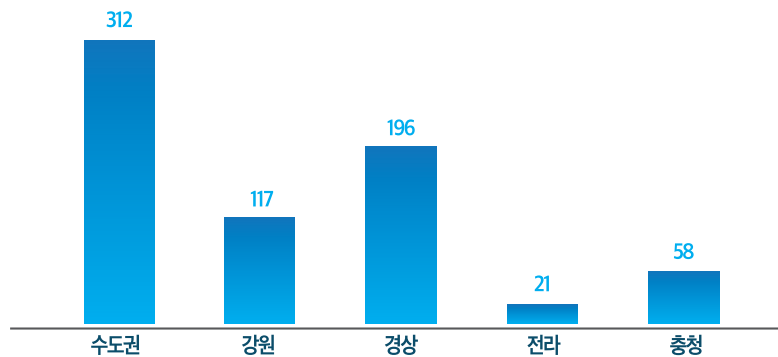
<표 II-17> 2019년 포럼 진행 현황

- ▶ 2019년 전국 지역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포럼의 수가 31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이어 다른 지역은 ‘경상’ 196개, ‘강원’ 117개, ‘충청’ 58개, ‘전라’ 21개 순으로 나타남
- ▶ 각 지역 포럼 수의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문화정책’ 48개 15.3%, 강원 ‘문화도시’ 17개 14.5%, 경상 ‘문화도시’ 34개 17.3%, 전라 ‘문화정책’ 9개로 42.8%, 충청 ‘지역축제’ 12개 20.7%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과 달리 ‘문화도시’와 관련된 포럼이 증가함에 따라 순위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 주제별 분석 결과

사업명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48	15.38	1	13	11.11	2	13	6.63	7	9	42.86	1	8	13.79	2
예술가(단체)지원	21	6.73	7	5	4.27	12	4	2.04	13	1	4.76	5	8	13.79	2
공간운영	21	6.73	7	6	5.13	9	11	5.61	8	-	-	-	3	5.17	7
생활문화	17	5.45	9	13	11.11	2	11	5.61	8	4	19.05	2	2	3.45	9
문화예술교육	23	7.37	6	6	5.13	9	6	3.06	11	-	-	-	-	-	-
인력 및 단체 양성	14	4.49	11	5	4.27	12	15	7.65	4	-	-	-	2	3.45	9
문화(예술)콘텐츠 / 프로그램	26	8.33	4	10	8.55	4	14	7.14	5	-	-	-	6	10.34	5
전통문화	7	2.23	15	6	5.13	9	10	5.10	10	1	4.76	5	-	-	-
지역축제	10	3.21	13	8	6.84	6	14	7.14	5	-	-	-	12	20.71	1
도시재생	25	8.01	5	4	3.42	14	24	12.24	3	-	-	-	1	1.72	11
문화도시	31	9.94	2	17	14.53	1	34	17.37	1	3	14.29	3	3	5.17	7
교류협력	30	9.62	3	7	5.98	8	31	15.82	2	1	4.76	5	4	6.90	6
문화다양성	16	5.13	10	8	6.84	6	5	2.55	12	2	9.52	4	1	1.72	11
문화향유격차해소	13	4.17	12	9	7.69	5	4	2.04	13	-	-	-	8	13.79	2
기타(직접작성)	10	3.21	13	-	-	-	-	-	-	-	-	-	-	-	-
합계	312	100	-	117	100	-	196	100	-	21	100	-	58	100	-

<표 II-18> 2019년 지역별 포럼 진행 현황



[그림 II-15] 2019년 지역별 포럼 현황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4) 연차별 포럼 변화 추이

-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포럼의 변화추이를 보면 ‘문화정책’ 포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 문화(예술)콘텐츠, 문화도시, 지역축제, 교류협력과 관련된 포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업명	2017			2018			2019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수	비율	순위
문화정책	40	18.26	1(-)	60	18.52	1(-)	91	12.93	1(-)
예술가(단체)지원	19	8.68	5(-)	19	5.86	8(↓3)	39	5.54	9(↓1)
공간운영	9	4.11	12(-)	21	6.48	7(↑5)	41	5.82	8(↓1)
생활문화	15	6.85	6(-)	30	9.26	3(↑3)	47	6.68	6(↓3)
문화예술교육	11	5.02	9(-)	15	4.63	10(↓1)	35	4.97	11(↓1)
인력 및 단체 양성	12	5.48	8(-)	14	4.32	11(↓3)	36	5.11	10(↑1)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	20	9.13	2(-)	28	8.64	5(↓3)	56	7.95	4(↑1)
전통문화	8	3.65	13(-)	5	1.54	14(↓1)	24	3.41	14(-)
지역축제	20	9.13	2(-)	29	8.95	4(↓2)	44	6.25	7(↓3)
도시재생	3	1.37	15(-)	9	2.78	13(↑2)	54	7.67	5(↑8)
문화도시	15	6.85	6(-)	34	10.49	2(↑4)	88	12.50	2(-)
교류협력	20	9.13	2(-)	25	7.72	6(↓4)	73	10.37	3(↑3)
문화다양성	11	5.02	9(-)	18	5.56	9(-)	32	4.55	13(↓4)
문화향유격차해소	10	4.57	11(-)	12	3.70	12(↓1)	34	4.83	12(-)
기타(직접작성)	6	2.74	14(-)	5	1.54	14(-)	10	1.42	15(↓1)
합계	219	100		324	100		704	100	

<표 II-19> 연차별 포럼 변화 추이



- ▶ 전체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포럼은 문화정책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해석됨
  - 3년간 포럼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은 ‘문화정책’이 지역의 이슈로 관련 포럼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임
- ▶ 3년간 포럼 순위의 변화추이를 보면 1순위 ‘문화정책’은 순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도시’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 2019년에 포럼 수가 증가하면서 2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에서 문화도시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생겨남에 따라 포럼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교류협력’의 경우 순위의 변화는 있으나 전체 진행 횟수에서 3위로 높은 순위로 나타남
  - 이는 개별 지역이 아닌 타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동사업의 기획·운영 등이 활발해짐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음
  -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지역축제’의 경우 2017년에는 2순위로 나타났으나 이후 다른 이슈가 새롭게 생겨남에 따라 순위가 낮아지게 됨(반면 포럼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 3년간 포럼 실행 수의 증가폭을 보면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와 관련된 포럼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3개에서 2019년 54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생이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문화예술과 접목한 사업으로 방향이 변경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음
  - ‘문화도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유 및 지역적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구분	2017		2108		2019		증가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증감	순위
문화정책	40	18.26	60	18.52	91	12.93	128	12
예술가(단체)지원	19	8.68	19	5.86	39	5.54	105	14
공간운영	9	4.11	21	6.48	41	5.82	356	3
생활문화	15	6.85	30	9.26	47	6.68	213	7
문화예술교육	11	5.02	15	4.63	35	4.97	218	6
인력/단체 양성	12	5.48	14	4.32	36	5.11	200	9
문화(예술)콘텐츠/프로그램	20	9.13	28	8.64	56	7.95	180	11
전통문화	8	3.65	5	1.54	24	3.41	200	8
지역축제	20	9.13	29	8.95	44	6.25	120	13
도시재생	3	1.37	9	2.78	54	7.67	1,700	1
문화도시	15	6.85	34	10.49	88	12.50	487	2
교류협력	20	9.13	25	7.72	73	10.37	265	4
문화다양성	11	5.02	18	5.56	32	4.55	191	10
문화향유	10	4.57	12	3.70	34	4.83	240	5
기타	6	2.74	5	1.54	10	1.42	67	15
합계	219	100	324	100	704	100	-	-

<표 II-20> 포럼 및 이슈 분석 총괄표

## 3 분석 결과 종합

### 가. 주요 이슈 트렌드

#### 1)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도시’

- ▶ 지난 3년간 지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문화도시’와 관련된 포럼과 실행사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포럼	사업	포럼	사업	포럼	사업
실행수	15건	1건	34건 (전년대비 +19건)	1건 (전년대비 ±0)	88건 (전년대비 +54건)	17건 (전년대비 +16건)
비율	6.8%	0.1%	10.5%	0.1%	12.5%	1.1%
순위	6	19	2(↑4)	19(-)	2(-)	14(↑5)

<표 II-21> 문화도시 관련 포럼 및 실행사업 변화 추이

- ▶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지역이 문화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임
  -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심사-예비사업-본지정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임
  -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이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본 지정까지의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슈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슈 트렌드에 비해 사업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업실행에 앞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본 지정 이후 사업실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지만 그 이전까지 혹은 독립된 조직이 구성된 이후에서 연계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도시와 관련된 지역적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2) 지속적 이슈인 ‘문화정책’

- ▶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지역적 이슈 또한 꾸준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정부주도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정책’과 관련된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은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문화정책’과 관련된 포럼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은 ‘문화도시’처럼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이슈가 아니기 때문임
- ‘문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포럼이나 지역 협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이는 ‘문화정책’ 주제로 진행된 포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정책’ 이슈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함
- 다만 ‘문화정책’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실행사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포럼	15개 중 1위 (40건 / 18.4%)	15개 중 1위 (60건 / 18.52%)	15개 중 1위 (91건 / 12.93%)
실행사업	19개 중 7위 (57건 / 4.79%)	19개 중 10위 (60건 / 4.18%)	19개 중 9위 (59건 / 3.97%)

〈표 II-22〉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연차별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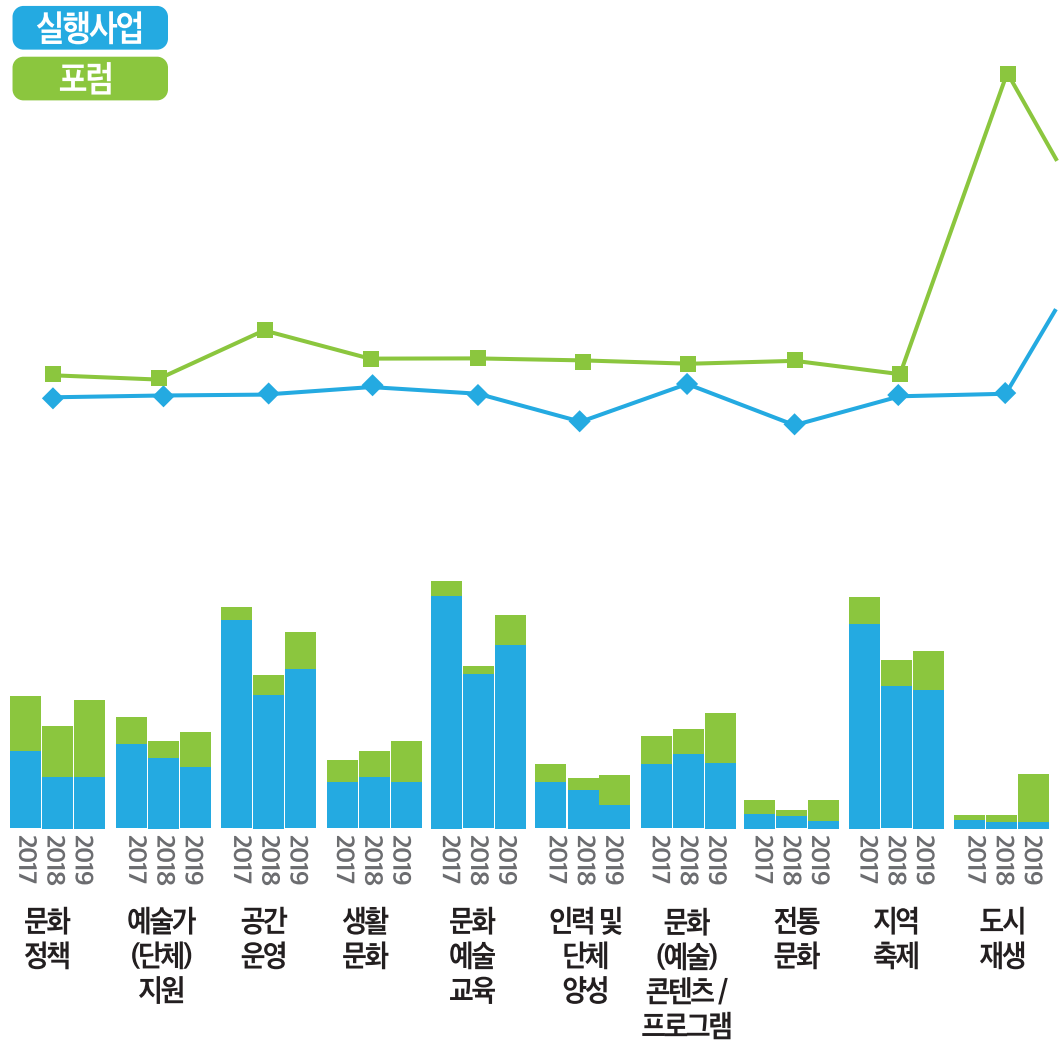
- ‘문화정책’과 관련된 포럼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문화정책’과 관련된 실행사업은 다른 실행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정책’ 이슈는 다른 실행사업처럼 단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나 ‘문화정책’ 이슈가 포럼이라는 형태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포럼이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문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실행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나. 이슈 트렌드와 실행사업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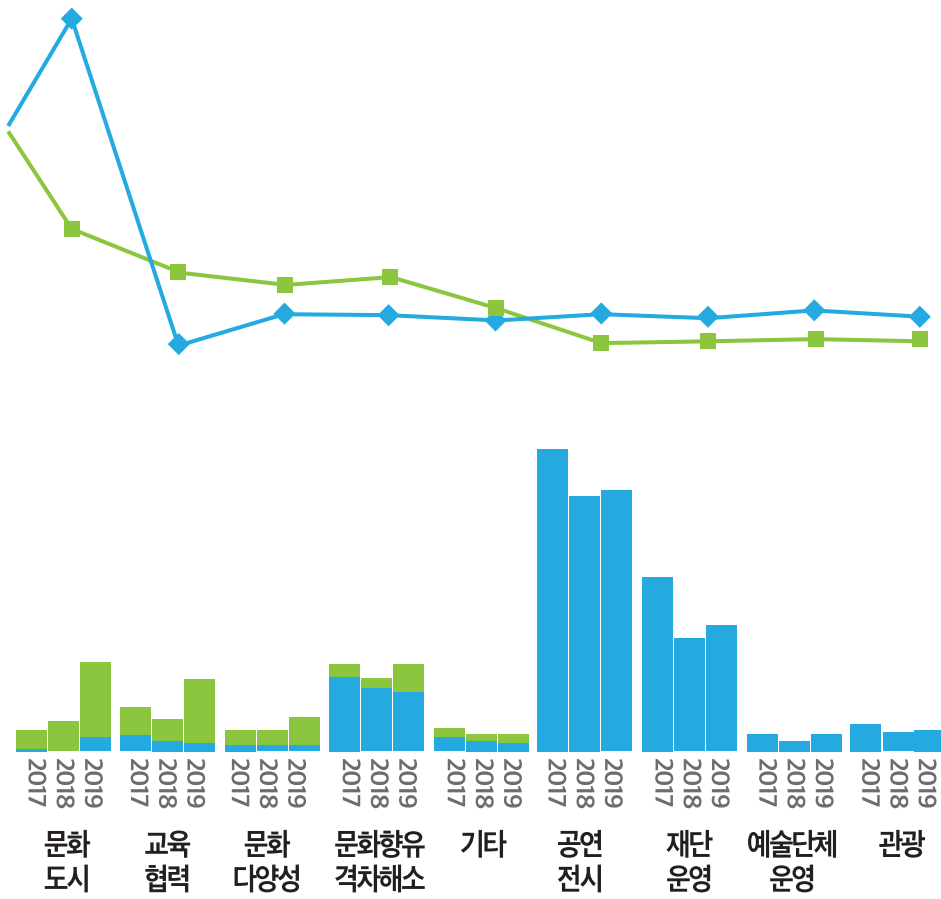
- ▶ 위 분석결과를 보면 실행사업과 이슈 트렌드가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실행사업은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공간운영’, ‘지역축제’인 반면 이슈 트렌드는 ‘문화정책’, ‘문화도시’, ‘교류협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주요한 사업영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 트렌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전통적인 역할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문화재단이 이슈 트렌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지역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도 확장되고 있음
  -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의 키워드는 큰 틀에서 지역문화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 혹은 상위기관의 사업을 지역에서 대행하는 역할에서 지역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로 확장되어 왔기 때문임
  - 다만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남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단순히 사업을 대행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지역 내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적 가치와 연결시키기 위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음
  
- ▶ 지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사업영역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실행사업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지역 내 공간의 활용 등 기존 지역문화재단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
  - 지역문화재단의 이러한 고유한 사업영역이 새로운 이슈 트렌드로 인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어야 함

## II.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 다. 분석 결과 종합 그래프



### 3. 분석 결과 종합





2019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 [문화정책] 기초문화재단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언

엄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기초문화재단들이 놓인 조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라고 일괄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광역자치도의 기초단위인 시·군과 광역시의 기초단위인 자치구의 기능이나 역할에서의 차이도 있고, 인구도 천차만별이고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나 문화활동의 활성화 정도도 차이가 크다. 더군다나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쌓인 역량의 차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초창기의 지향, 재단을 구성하는 모태가 되었던 과거 활동기구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기초문화재단은 서로 매우 다르다. 특히 2013년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지역문화지원의 전달체계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틀이 잡혔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일정하게 공식화된 틀이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초창기에 기초문화재단을 만들어 지역문화정책 생태계를 선도했던 곳들, 예컨대 부천문화재단과 같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오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온 곳들이 존재하고 그런 모델들이 후속주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들을 대체로 지역문화재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초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또한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이 갑자기 만들어진다고 보다는 기존에 지역에서 운영하던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관련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기구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초창기 기초문화재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역적 상수로 작용한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대다수의 기초자치체의 문화관련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넉넉한 예산을 기대하긴 힘들고 자기 자산을 충분히 확보한 채 출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조건을 염두에 두면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입장들, 예컨대 시설관리에 치중되어 있다거나 지자체의 수탁사업에만 매몰되었다는 의견들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런 구조를 전혀 무시하고 기초문화재단의 활동을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몇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도의 측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기초문화재단을 포함한 지자체의 문화재단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관련 지원기구와 광역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가 하나의 생태계적 연결고리로, 그물처럼 연결된 구조는 아니다. 중앙의 문화예술지원 기구는 크게 보자면 기초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인 복지에 관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에 대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일반에 관해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원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세부 분야로 보자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 중간조직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트랙으로 문화예술지원구조가 존재하는 셈인데 이런 구조는 문화예술분야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광역이나 기초로 내려갈수록 정책전달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모지원형태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는 지역문화재단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나마 행정 인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광역문화재단의 경우는 이런 행정부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초문화재단, 그 중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지 못한 설립 초창기의 기초문화재단의 경우는 업무에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거나 실무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역설적으로 현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예술가 및 시민들과의 대면접촉이 더 잦아야하고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문화재단으로 갈수록 오히려 과도한 행정적 부담에 시달리며 업무에서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기초문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화재단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 신규업무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그 원인을 따져 물으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이번 트렌드 조사에서 드러나는 동향 역시 이런 지역문화재단이 놓인 제도적 한계에서 유래한 측면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사업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한다.

## 2. 사업 측면

최근 수년간의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분명 기초문화재단의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할 것도 많고, 할 것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불평에 시달리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문화부)와 그 산하 지원기구에서 기초문화재단을 사업 시행의 기본 베이스로 인식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 것과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사업의 전체적 분포를 보자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공연전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문화재단 대다수가 주로 시설, 그중에서도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간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전시가 비교적 소프트웨어(프로그램)적인 접근이라면 그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공간운영(하드웨어)이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기초문화재단이 현재 사업에서 지역의 문화시설 운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이다. 이것은 각 기초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주요 동인 중 하나가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지역 문화시설들은 제5공화국 시절에 시작된 문예회관 건립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문화복지가 강조되었던 문민정부 시절, 즉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문화시설 조성 정책은 지역 문화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기초지자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시설 조성에 치우치고 시설 운영이나 활성화에 대한 투자나 노력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지역문화 활성화 효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 활성

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특히 문화시설이 조성 이후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표되는 관리형 조직에 의해 운영되면서 운영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화재단을 통한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지자체 문화시설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공공 문화시설은 그 특성상, 수익상의 이익을 가져오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단순 관리를 위한 인건비나 경상비 외에도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이에 따른 발전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는 문화재단 수립 이후에도 문화시설의 업무만을 넘기고 있을 뿐 중장기적 비전 마련이나 발전전략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투자를 꺼려하고 있으며 자체 기획 프로그램의 마련도 부진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화재단에게 무리하게 시설 운영의 단기 계량적 성과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직 설립 초창기인 대다수 문화재단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시설 관리 인력들의 상당수가 시설관리공단 등 기존의 관리형 조직에서의 고용승계를 통해 넘어오기 때문에 기존인력의 콘텐츠 개발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문화재단을 채우는 공연 및 전시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지원(중앙의 한국문화재단연합회 등의 지원 사업 등)이나 외부 콘텐츠로 채우고 있는데 비록 당장은 프로그램 자체를 가져오더라도 지역의 공연, 전시 집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영역 역시도 현재 기초문화재단의 주요한 사업이거나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져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기초문화재단의 특성상 역시 기존 시설을 활용한 강좌형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질적 성장이나 중장기적 비전을 만들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고민이 존재한다. 특히 기존 시설에서의 문예회관 강좌 프로그램이 비교적 낮은 강사료 등의 이유로 고품질로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며 단기적 이슈에 따른 단발적 교육 프로그램이나 원데이 클래스로 존재하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갖고 있는 허브로서의 역량이나 기능을 감안한다면 강좌형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지역의 다른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면서 재단은 이를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기획자로서의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역량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 영역은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중앙의 지역문화지원체계와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방향 설정상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이 역시도 기초문화재단이 직접 수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모두 떠안게 된다면 행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의 자발적인 역량을 키워내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문화재단들이 지역사회네트워크 안에서의 내용적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생활문화 활동의 인프라를 개방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빠르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는 마을예술창작소와 같은 유사 성격의 시설들, 지역의 문화의집, 문화원, 지역문화지원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생활문화와 인접한 공공의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분포와 이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여기 역시 법정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되는 지역서점이나, 법적으로는 생활문화시설의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문화활동이 가능하고 또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여성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엮어 지역에서의 공공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트렌드 분석에서는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의 주제가 최근 기초문화재단의 주요한 사업 어젠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과 문화지구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서의 문화자원의 활용 등을 기초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주제가 기초지자체의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며 문화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일종의 기회의 측면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지점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시작은 지역의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기초문화재단이 시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개방성, 민주성, 시민 자발성 등의 요소들은 자칫 관료조직으로부터는 계량적 성과에 대한 요구와 지역 정치 다양한 요구들 사이에서 소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시민 사회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조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민문화가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며 그런 탓에 자칫 기초문화재단과 그 실무인력들이 통치 도구를 전유하고 있는 관료조직과 발언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민 여론 주도층 사이에 기능적으로 뚜렷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남아있다. 또한 기초문화재단이 문화도시와 같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서 자기 역할을 가져가기에는 사업 주도성이나 기반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도시 류의 사업들이 자칫 기초문화재단의 개별 사업으로 소모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웃소싱을 통한 플래닝에 행정적인 보조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3.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측면

기초문화재단이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문화정책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역 사회에서의 다원적 시민문화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깊이 연구되고 창의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예컨대 성북에서의 공유원탁회의와 같은 모델과 은평구의 은평누리축제 등의 시민 주도형 축제의 경험들을 각각 갖고 있으며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로 발전해가고 있다. 물론 아직 전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형화된 틀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역에 이러한 시민자발성의 근거한 문화정책의 시도가 존재했고 그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제도(시민문화조례 등)와 기구(자치구문화재단)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초문화재단 문화거버넌스의 첫 단계였다면 그것이 시민의 일상 영역에까지 뿌리내리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화거버넌스의 기능들은 기초문화재단의 현재까지 지역 담론장 안에서 갖고 있는 한계들, 다원성과 평등성에 의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 안에서의 위계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계속 실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참고해봐야 할 것이 2014년에 만들어진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이다. 문화다양성은 지금까지 문화정책 일반에서나 기초문화재단의 업무영역에서 단지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후 법적 근거를 토대로 문화다양성을 기반한 지역문화의 거버넌스 체계를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영역 설정에 적극적으로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역문화현장이나 예술계가 전통적인 예술생산/문화향유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다양성 범주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 취향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영역들의 자기발언력을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네트워크하고 재구성시키는 방향이 고민되었을 때 문화도시나 지역재생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의 접점에서 문화정책이 파급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초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문화재단 사업 역시 이런 관점의 이동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에서의 규범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 이해관계와 문화정책사업의 기존 틀에서 주어지는 사업들을 수행하면서도 다음 단계의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품을 수 있는 구조로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다.

## 4. 이후 과제

1990년대 후반 이후 문화민주주의 정책 방향과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 예술지원정책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촉발했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던 문화예술정책의 자원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혹은 자발적인 문화예술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했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주체들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문화정책이 제도적으로 중앙집권/정부주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분권의 지향은 단순히 문화행정의 권한을 중앙집중의 방식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차원을 떠나 문화행정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그 중심을 지역문화의 다원성으로 이동시키고 협의로서의 문예정책이 아닌 광의로서의 문화, 즉 “일상의 총체로서의 문화”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대두되는 정책적 요구의 다원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저런 사업들이 설계되고 사업이 배분되는 측면이 있으나 문제는 이런 흐름의 근간에서 정책이 상위공급자(중앙부처) 중심으로 설계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의 논리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중간지원 조직들이 지역 안에서의 소통과 협업보다는 중앙이나 정부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초문화재단들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정책 생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다. 이 매커니즘 안에서는 여전히 중앙은 정책의 생산자, 지역은 정책의 소비자라는 시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문화재단들이 주무부처가 아닌 지역의 문화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필요하다. 즉 트렌디하게 만들어지는 사업이나 중앙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발화되고 구성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달체계의 근간이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행정과 예술지원과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는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 차원의 정책사업들을 기초단위의 일상으로서의 지역과 삶의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며 영역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지원조직과 지역조직들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정리해 나가는, 지난하지만 창의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 [문화도시] 2020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조사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관련 이슈 트렌드에 대한 제언<sup>1)</sup>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는 글 - 선문으로서 이해를 구하고 공유해야 할 논제 및 의제들에 대해

먼저 이 글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 트렌드에 대해 축약적으로 논의하는 글이라는 것을 밝힌다.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에 대해 하고 싶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글의 주제에서 초점을 맞추고 논의 가능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축약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글의 전체적인 전개는 제언에 앞서 전제와 배경이 되어줄 고민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하며, 이후 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제언에서는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기본기로서의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특히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테두리에서 잊혀져버린 이른바 ‘망각의 의제’와 연구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제시되었으나 쉽게 간과되고 있는 ‘숨은 의제’ 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필자가 작성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관련 이슈 트렌드에 대한 제언”의 내용은 필자의 제언과 함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2016,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2019,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의제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 또는 재구성, 재편집하거나 각 의제에 대해 새롭게 내용을 집필하여 종합 구성한 내용임을 밝힘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 : 고민 하나, 도시의 욕망,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지역문화재단의 이슈 트렌드로서 나타난 문화도시,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집중에 앞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을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도시가 움직이고 변화하게 만드는 사회적 욕망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문화도시 그리고 도시재생이 정말 자신들의 도시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로 하고 있는가?, 도시의 시민들이 원하고 공감하는가? 아니면 도시의 위정자 또는 재단 자신이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등에 대해 잠시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 : 고민 둘, 지역은 문화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음, ‘지역은 문화로 도시를 움직이고 변화시켜나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문화도시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왔었는가?, 그 고민의 결과로서 지역에서는 문화도시 또는 도시재생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이 고민해볼 지점이라 사료된다.

지역재단들에서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이 이슈이자 트렌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적어도 이에 대해 지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며 어디까지 고민해왔는지, 나아가 향후 무엇을 얼마나 고민해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 먼저 묻고 자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 스스로의 물음에 있어 문화도시, 도시재생 모두 앞으로 도래할 수도 있는 문화의 태세로서 “문화 기반의 사회전환”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의미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준비로서 지역에서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화가치 중심의 사회좌표를 만드는 시대의 기획이자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둔다면 그 답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2. 문화도시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이슈와 의제들에 대한 제언

2020 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결과에서 보게 되면 2018년부터 지역재단들에게서 문화도시에 대한 포럼과 사업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그에 따라 재단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2018년 5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 공고로 정책과 사업이 정식의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지역 현장에서 문화지형의 변화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도시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변화는 2019년 12월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본격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에도 그 관심과 변화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 같은 관심 속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또한 동시에 나타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현장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에서 문화도시가 매우 중요하고 매력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지역 이슈이자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문화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제들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로써 문화도시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의제로서 지역에 자리 잡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본 글에 실는 문화도시에 대한 의제와 그 제언은 지역의 문화재단들 뿐만 아니라 재단들과 함께 지금 현재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도시 그리고 향후 추진할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참고할만한 방향으로 제언해보고자 한다.

### 2-1. 문화도시의 기본 개념과 구조 모델에 대한 이해

#### : 문화도시, 다시 개념의 정의로부터 시작하기 - 기본 개념으로부터 지역의 개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정책사업에서 제시한 문화도시의 개념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로 종합된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개념정의는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한 법적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연구(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리한 개념정의가 전체 내용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2020년 현재, 문화도시가 지역의 이슈이자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에는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론과 현장의 분야전문가들 사이에서 오히려 매우 다채롭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문화도시가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현재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의 큰 축을 구성하는 정책적 개념정의를 이해하고 지역각자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개념이 공유되고 합의되어야만 향후 문화도시의 상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립되어 시대적인 문화이슈로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개념정립의 시기가 된다 하겠다.

필자는 문화도시 연구 이후 “문화도시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는데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명료하고 쉬운 근본의 개념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약 500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지?’라고 자문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고민 끝에 필자는 내 자신만의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었으며 필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문화도시란,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이다.”

이 정의가 문화도시의 궁극의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겠으나 필자만의 개념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은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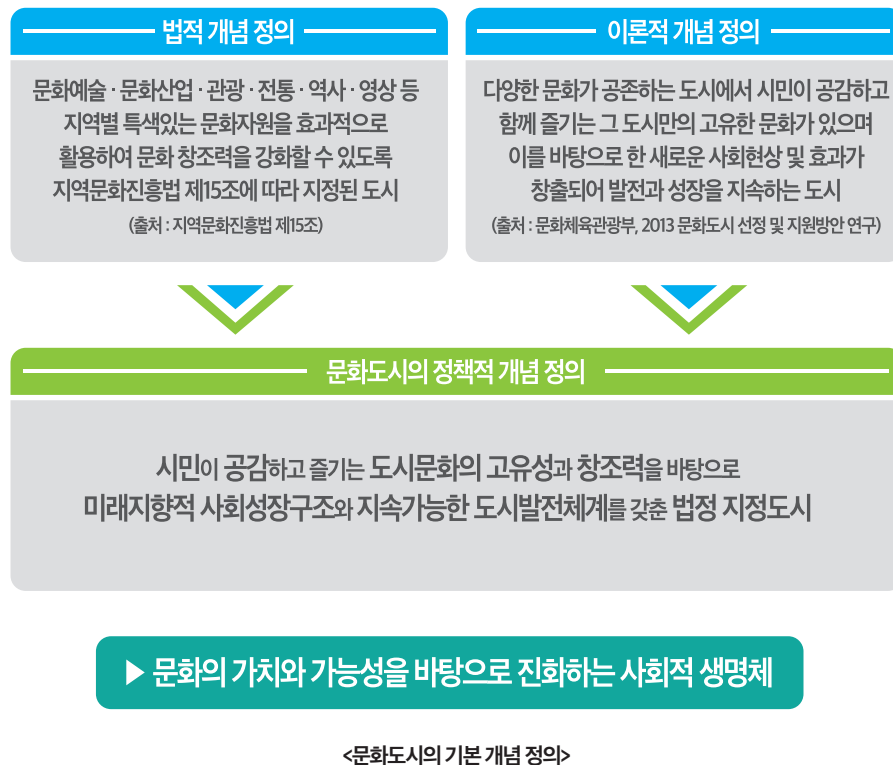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성되는 사회집합의 생명체로서 태어났으며, 도시는 도시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도시의 문화가 된다. 그리고 도시는 앞으로도 도시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함께 도시적인 삶의 모습, 즉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으로 그 사회가 꿈꾸는 미래를 그리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사는 삶

## 2. [문화도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관련 이슈 트렌드에 대한 제언

의 모습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큰 사람이  
자 생명체, 그것이 필자에게는 문화도시를 의미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정의로 돌아가보자. 지역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문화도시, 대체 무엇  
입니까?”라는 물음을 수도 없이 받았던, 아니 지금도 받아오고 있는 필자가 이제는 지역에  
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당신에게 문화도시란 무엇입니까?”

문화도시가 한 개인의 연구주제에 머무르던 때를 지나 지역의 문화이슈이자 정책의 화두  
가 되었다고 하는 지금, 지역은 자신들의 도시가 바라고 추구하는 문화도시란 과연 무엇인  
가에 대해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신해야 할 차례이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 : 문화도시 추진구조모델 들여다보기 - 문화도시의 추진을 위한 과정적 방법론의 길잡이

문화도시의 기본 개념 정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화도시 추진 구조모델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연구(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와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 공고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하고 있으나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의 법적 지정과 사업 추진에 관심의 주력을 나타내고 있어 구조모델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간과하기 일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도시의 개념과 함께 정리한 구조모델에는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목표를 제시해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담고 있어 문화도시의 추진 원칙과 원리를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각 지역의 도시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경영체계에는 거버넌스로부터 사회자본 형성까지 다루어 문화생태계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의제를 다루고, 문화력과 관련하여 지역가치 재발견으로부터 문화환경 실현을 통해 도시 브랜드로 이어지는 구조의 도시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효과 발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역생산구조로부터 문화혁신거점 조성까지 문화가 사회와 연결되는 도시발전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도시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치를 위한 자율적 사업구조로 지역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의제 또한 제시해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도시의 추진구조모델을 통해 문화도시의 계획과 실현을 위한 가치키워드들이 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특히 지역자산의 개발과 축적, 새로운 지역생산(사회적 실험 포함), 장소기반의 사회혁신 등과 같은 의제들은 문화기반의 사회전환과 미래전략 구성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로 지역에서는 문화를 통한 도시의 가치혁신과 함께 새로운 도시발전좌표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도시의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추진구조모델은 문화도시 추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문화도시의 개념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과정으로, 과정에서 전개로, 전개로부터 파급으로 이어져 궁극의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도시는 이 기초모델을 자기모델로 완성해가면서 문화로 도시가 전환되고 발전하는 문화기반 사회생태계의 새로운 구조(형과 쉼)

## 2. [문화도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관련 이슈 트렌드에 대한 제언

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문화도시의 추진구조모델을 살펴보면서 자기 도시가 어떤 위치에 와 있으며 향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의 경영위치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도시에서는 현재 무엇을 이루었고 어디까지 와있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생각못했는가?, 향후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등 자신들의 도시가 지금 문화를 통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제 어떤 모습을 만들갈 것인지를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도시 사업설계구조 기본 모델 (안) -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						
계획개념 (Concept)		기획과정 (Process)			사업목표 (Objective)	
문화 도시 사업	문화적 도시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도시문화 거버넌스 Cultural Governance	»	문화경영체계 구축 Management System	문화 생태계	문화적 도시 철학  & 지역 문화 진흥  & 문화 자치 기반 구축
		인재양성 및 육성 Human Maker	»	사회적 자본 형성 Social Capital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고	지역가치 재발견 Local Rediscovery	»	지역자산 개발·축적 Cultural Asset	도시 브랜드	
		문화기능 활성화 Cultural Activation	»	문화환경 조성·실현 Cultural Environment		
	지속가능한 사회효과를 발현하여	새로운 지역생산 New Local Product	»	사회효과 발현 Social Impact	도시발전 구조/ 효과	
		도시 공간 재생 Cultural Regeneration	»	문화장소·혁신거점 조성 Cultural Place & Innovative Hub		
	문화중심의 지역자치 능력을 높이는 사업	지역 자율성 인정 Local Autonomy	»	지역 자생력 강화 Cultural Power	지역 정체성	

〈문화도시 추진구조 기초모델〉

## 2-2. 문화도시의 스케일 찾기와 도시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 :문화도시 스케일 찾기 - 도시를 문화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메카니즘에서 첫 번째 작동원리

2018년 5월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이 정식 공표된 이후 제1차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문화도시가 풀어나가야 할 의제들은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

그 중에서도 2020년 올해 문화도시(특히 제1차 문화도시)는 자신의 도시가 가진 스케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그 스케일을 도시 전반으로 확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스케일을 찾는 작업은 문화도시로서 도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자신들의 도시 문화가 가진 색과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가 과연 어디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규모, 가능성을 가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도시가 문화도시로서 적합한 도시스케일을 찾기 위해서는 문화의 가치 자체를 발현하는 작업과 함께 문화와 사회 각 분야가 연결되어 효과를 생성 및 파급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사슬 연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는 후에 논의할 문화의 해석스케일과 연관된다.)

문화도시는 도시의 전체적인 가치이자 태제가 될 수 있는가?,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전체적인 지리적 범위(도심, 중심지, 원도심 등 일부의 특정구역뿐만이 아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문화도시는 사회가치와 윤리, 교육, 복지, 환경, 경제와 산업, 도시인프라, 공공행정, 심지어 정치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만들어가는 각 분야별 구성요소들과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그리고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문화로 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한 문화도시의 상은 그 발전의 모습을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롭게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도시는 스스로 고민하여 찾아낸 문화적 힘의 스케일이 향후 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고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지역사회와 대중이 상상할 수 있게 보여주는 도시문화의 바로미터로서 이른바 ‘문화도시 가치의 깃대종’이 되는 “도시 징후”를 발현하여 사회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의 스케일을 찾는 작업은 문화도시가 가진 가치철학과 정체성을 사회 전반구조에 맞게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후에 도시가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새롭게 전환하는 태제이자 도시의 문화브랜드로 정착되어 도시의 문화에너지와 사회발전효과를 생성하는 기저의 메카니즘으로서 발전될 것이다.

#### **:문화도시의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 문화가치로 투자하고 도시 성장·발전효과로 환원**

문화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기획은 기존의 문화라는 가치로 창작·생산하여 참여하고 향유하는 일반적인 문화기획의 관점을 넘어서야 하며 앞으로는 문화가치를 도시와 사회에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투자효과를 생성 및 창출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투자결과의 생성물을 저장/축적/적립하여 도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도시의 미래 기획에 대한 관점으로 확장(또는 확대)하는 구도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문화가치로 도시 성장 및 발전효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에 근거하는 개념으로 도시에서 문화가치에 기반을 둔하는 지역의 새로운 생산구조가 생성·작동되어 투자효과 및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지역의 가치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문화라는 가치가 도시에 투자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사회가치/도시자산/지역재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는 다시 어떻게 도시의 발전구조로 환원될 것인지에 대한 가치순환의 알고리즘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문화기반의 사회생태계 구조 및 순환체계 형성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되어 문화도시의 새로운 성장 및 발전구조가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가치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형성 관점과 구도는 아마도 일반적인 문화기획과 문화도시의 기획을 구별하는 기준선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문화도시 추진 초기 도시의 시민들이 문화도시에 공감하고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문화도시의 근본적인 기반체계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과정 및 추진방법론을 넘어서는 구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문화도시가 획득한 시민공감 및 문화활성화를 바탕으로 문화기반 사회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그 다음의 도시기획 작업이 어떤 모습과 상으로 도래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도시의 길을 여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문화가치 투자에 대한 도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를 통해 문화都市는 정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이에 근거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가치와 철학에 힘을 싣고 지역사회가 지지하는 도시브랜드를 문화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문화都市는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이자 태제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을 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출현할 것이라 생각한다.

### 3.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중심)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이슈와 의제들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정책에서 정식 등장한 것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부터 법에 근거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채택되면서 그 추진규모는 확대되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도시재생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으로 채택되고 추진되기 시작한지 약 8년째, 도시재생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논의되었으며 지금까지 매우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된 의제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이 지역의 최근 이슈이자 화두로 떠오른 지금의 시점에서 문화분야(재단 포함)에서는 도시재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역은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을 다루고 추진하기 위한 문화적 기술과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만 하다.

2020 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결과에서 볼 때 문화재단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2018년을 지나서야 비로소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는 그다지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는 어쩌면 위의 논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묵묵한 무언의 반증일지도 모른다.

도시재생이 지역의 이슈 트렌드가 된 지금,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문화재생의 태도와 관점이 바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본 글에서는 문화재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향후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의제를 다루어 제언하고자 한다.

### 3-1. 문화적 지역재생의 관점 이해하기 - 왜 도시재생이 아닌 지역재생인가에 대한 이해

#### : 물리적 토지경계에 근거하는 도시재생, 사회인식적 인지경계에 근거하는 지역재생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영역으로서 정해진 토지구역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된다. 이른바 땅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정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토지구역에 한정지어 삶을 살지 않으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 정서적인 생활권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

문화재생이 문화의 가치와 같이 삶의 모습과 스타일을 만드는 유기적인 재생을 추구하고 있다면 옹당 토지구역의 정해진 구역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생활권과 사람들에게 의해 인지되고 있는 인식적 경계범위로서의 구역을 바탕으로 한 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한 면에 있어 지역의 의미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구획을 구역으로 확정·구분하는 도시의 개념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삶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의 터로서 정서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사회의 삶의 터가 변화하는 과정에 상응하여 유동하는 정해지지 않은 경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며 이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생활의 터로 인지하거나 알고 있는 인식적 경계로서의 의미를 지역이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 사회적 삶의 모습과 스타일을 만드는 문화재생의 삶의 터로서의 경계에 대한 이해

문화의 광의적 개념을 담아 삶 그 자체가 곧 문화로 해석되는 문화재생의 개념에서는 사회의 수많은 삶이 만들어내는 터가 문화가 만들어지는 터가 되며 문화의 터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여 인식적 경계로서 유동적이며 유기적인 경계를 가지는 지역의 개념이 문화에는 더욱 합리적인 경계구역의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문화적 지역재생은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을 중심으로 한 정주가치 설계 및 환경관리 중심의 재생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가치철학 설계와 삶의 양식을 관장하는 문화의 재생이 그 중심 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인생설계, 그리고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사회지향가치 설계와 같은 사회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재생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 “문화적 도시재생” 보다는 “문화적 지역재생”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문화에 적합한 관점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역에서는 이를 근거로 “문화적 지역재생”의 개념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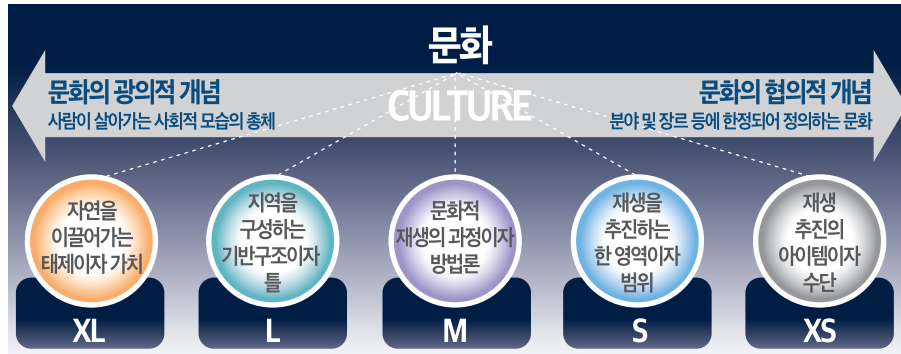
### 3-2. 문화적 지역재생에서 문화의 스케일과 그 스펙트럼에 대해 살펴보기

#### : 도시를 바라보는 문화의 다양한 해석과 시각 이해하기 - 광의의 문화로부터 협의의 문화까지

현재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스케일은 문화로 도시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 그리고 도시에서 추구하는 문화의 가치와 의미에 따라 다양한 해석 스케일(XL / L / M / S / XS)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상과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도시문화의 스펙트럼을 펼쳐내고 있다.

<sup>2)</sup> 다만, 이는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적 지역재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데 유용한 의미를 갖고, 이와 같은 구分的 설명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 대해 반박하는 차원의 독립적 관점과 완전하게 구분을 짓는 경계로서의 의미를 만들고자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임 또한 이에 구체적 개념정의 및 구분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재생 모두 동시에 복합적으로 쓰이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개념이자 구분 정의가 됨

## 2. [문화도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 관련 이슈 트렌드에 대한 제언



문화의 개념			가치와 역할 해석
광의적 개념의 문화	XL	지역을 이끌어가는 태제이자 가치	문화가 그 지역 사회의 가치 중심이자 철학으로서 안착되어 지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의 광의적 의미가 최대화되는 문화
	L	지역을 구성하는 기반구조이자들	문화적인 지역재생으로 지역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지역재생의 구조이자 기반 틀이 되어 사회 전반 분야에서 그 바탕이 되는 문화
▼	M	문화적 재생의 과정이자 방법론	문화가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역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역재생의 과정을 열어가는 중요축으로서의 핵심코어가 되고 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문화
협의적 개념의 문화	S	재생을 추진하는 한 영역이자 범위	지역의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한축이자 영역을 담당하면서 정해진 범위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생성·발휘되는 문화
	XS	재생 추진의 아이템이자 활용수단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사용 및 활용하는 아이템 또는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는 수단이자 촉매제로서 기능 및 역할하는 수준의 작은 범위로 작용하는 문화

### <도시에서 문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해석 스펙트럼>

그 상과 스케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지역사회 태제로서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의 문화스케일(XL)로부터, 문화가 도시의 바탕 또는 사회 틀이 되면서 과정 및 방법론을 구성하는 기반구조로 작동하는 스케일(L~M), 문화의 뜻을 예술의 한 장르 또는 사업영역에 국한하거나, 테마 중 하나로 활용하는 스케일(S), 그리고 사업의 이슈형 콘텐츠 또는 아이템 중 하나로 문화를 활용하는 등 가장 소소한 의미이자 수단으로 보는 협의적 개념의 문화스케일(XS)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 :문화의 스펙트럼을 읽고 자기 도시의 스타일 찾아가기 -문화의 상에 대한 유동성과 적합성

지역이 문화적 지역재생에 대한 이슈 트렌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는 근본 가치로서 문화의 도시적 해석스케일과 스펙트럼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스케일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거나 또는 어느 스케일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접근이 아니며 지역이 느끼고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바라고 있는 문화의 모습과 스펙트럼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가치와 의미로 상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유동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이는 앞서 논의한 문화도시의 스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유념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각 도시는 먼저 광의의 문화로부터 협의 문화까지, 개인의 취향으로부터 공동체를 넘어 사회의 문화까지, 휴먼웨어로부터 하드웨어까지, 사회태제로부터 사업아이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대에 자신들의 문화적 지역재생에 맞는 문화의 상과 스펙트럼을 바로 읽어내고 그 가치를 정립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역재생의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3-3. 장소기반의 문화로서 문화적 지역재생 추진하기

#### :장소기반의 문화기획과 경영으로 지역기술 축적하기 -실존적인 실체로서의 문화기획 등장

2020 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결과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축약 해석해보면 지역에서 장소기반의 문화정책이 이슈 및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지역에서의 문화기획이 가치만을 지향하거나 의지 및 활동으로 펼쳐지던 문화기획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의 형과 꼴이 생기고 그 중심성을 가지면서 문화가 지역과 직접 밀착되고 연결된 공간범위 및 영역 안에서 펼쳐지는 실존적인 실체로서의 문화기획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문화를 다루는 사회적 방법론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해 논의하자면 필자는 이와 같은 장소기반의 문화기획의 사회적 이슈화는 하나의 문화기술적 - 사회전략적 진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며, 이와 동시에 장소기반의 문화기획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에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문화로 지역의 장소성을 만드는 기술과 방법론들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제대로 학습해나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적 지역재생으로 문화앵커구역 만들기 -장소의 질을 높이고 힘을 갖게 하는 문화기획**

장소기반의 문화기획의 초점은 단순히 문화공간 및 시설을 만들고 조성하는 것 또는 일정 공간 및 영역에서 문화기획과 그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행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진 문화특성에 기인하여 공간적 맥락과 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에 근거하여 문화와 공간, 문화와 구역, 문화와 사회 각 영역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에 해당하는 장소의 질(스타일 그리고 수준, 운영의 창의성 등)을 높이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문화분야에서 논의하는 문화적 지역재생의 초점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소전략에 대해 찰스랜드리는 그의 저서 “크리에이티브 시티메이킹”에서 도시기획의 과정에서 한 구역 또는 공간에 대해 장소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문화적 지역재생(즉 장소기반의 문화기획)을 통해 생성되는 문화장소 또는 구역은 나아가 해당 장소 자체의 장소성 획득뿐만 아니라 그 장소성이 도시에 연결 및 파급되어 그 효과를 전달하고 이후에는 효과로 파생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서 문화장소로 환원되는 지역적 관점의 문화가치의 순환고리에 대한 기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지역재생에서 만든 기획과 작업을 통해 해당 장소 또는 구역이 도시적 스케일에서 문화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의 문화앵커구역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특히 모든 것을 안에서 생산하고 안에서만 소통하는 문화장소란 결국 고립되고 소실되어 버린다. 따라서 문화적 지역재생을 통한 도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앵커구역이 되어 도시적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며 도시 안에서 기능 및 역할하는 개체로 도시전략적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람 - 공간재생 - 장소재생 - 도시재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지역재생이 바라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도시재생을 넘어 지역적 의미의 도시공생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준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이러한 장소기반 문화기획의 기술과 방법론은 문화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기성을 증대하는 지역의 연결 즉 문화와 사회의 가치사슬 연결이라는 고도화되고 실제적인 기술들로 치환 및 실현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지역에서는 문화적 지역재생을 통해 장소기반 문화기획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사회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문화기술 툴킷(tool kit) & 스킬셋(skill set)으로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 :문화의 소셜임팩트 효과에 주목하기 - 문화로 사회를 고민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실험

문화적 지역재생에서는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제를 생성·발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표상과 특징을 만드는 다채로운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같은 시도는 지역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함께 살며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실험 이른바 사회고민 숙의·해결형 실험이 주가 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에 사는 누구든지 일상에서 문화를 통해 유용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생활력을 만들고 그 힘에 근거한 도시 삶과 활력이 다채롭고 즐겁게 펼쳐지는 일상의 지혜가 담긴 유쾌한 재생이어야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회적 실험은 지금 도시의 주력세대와 함께 도시의 어린 세대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가 다음 사회를 만들어나갈 문화적 힘을 비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생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소셜임팩트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문화기획자의 가치가 존중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4. 지역문화재단 및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살펴볼 만한 이슈와 의제들에 대한 제언

앞서 문화도시에 대해, 그리고 문화적 지역재생(도시재생)에 대해 지역문화재단의 사람들(넓게는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펴볼만한 이슈와 의제에 대해 둘러보았다면 이제는 지역문화재단 및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 자체적



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이슈이자 트렌드로서 등장한 문화도시, 도시재생에 대응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재단을 끌어안고 있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단순하면서도 복잡미묘한 고민 속에 수많은 의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재단과 전지연이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모든 의제들을 다루어 의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2020년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이 지역의 이슈 트렌드로 정확히 확인된 지금,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한동안은 그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 가장 기본기가 되는 몇 가지 의제와 잊혀질만하여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의제를 중심으로 그리 길지 않게 요약하여 제언해보고자 한다.

#### 4-1. 지역재단이 살펴볼 만한 이슈와 의제들에 대한 제언

##### :활동가가 아니라 정책리더이자 사회관계연결자 - not player but organizer & connector

역시나 가장 먼저 이야기할 의제로는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주체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기획-활동가(player)가 아니라 사회적 관점을 제시하고 지키는 정책리더(organizer)이자 지역사회의 관계를 만드는 연결자(connector)로서 역할하는 전문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아직 자꾸만 독보적인 플레이어로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혹시 나만의 생각일까?)

이 같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미국의 제인제이콥스는 그녀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마을 또는 구역에 존재하는 사회연결자로서 “공적 캐릭터”라고 대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지역의 분위기를 읽고 정보를 알며 지역의 각 주체들을 이어줄 수 있는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문화와 사회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마디마디에서 사회적 소개자, 길잡이,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재단의 주체는 정책리더이자 사회적 연결자로서의 역할하는 전문가로서 도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요구하며, 이는 도시경영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화지형의 맥락 속에 사회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할 위치와 위상, 기능과 역할, 권리와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능력,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을 앞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견인하고 지시하며 이끌어 가는 추진의 리더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가운데 옆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을 형성해주는 자로서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재단의 사업팀장 정도의 주체라면 자신이 사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문화적 기술을 통해 협의와 조율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에서는 지역의 기획활동가들 즉 플레이어들이 서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도시를 지혜롭게 읽고 해석하기 - 왜 도시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읽고 해석할지를 아는 지혜**

먼저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도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여 변화하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도시로서 계속 존재하고 새롭게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는 도시의 모든 모습을 보고 완결된 정의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으로 도시기획 작업을 하다보면 으레 도시의 모든 것을 단 시간에 이해하려 들거나 또는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대부분 도시를 파헤치다 모든 시간을 보내버리거나 도시읽기를 포기하고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마무리한다든지 또는 도시 안 작은 범위의 정밀분석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본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작업은 그 도시가 생겨난 이래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오랜 작업이 필요한 일이며, 도시 안에서의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모습과 사건들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삶들이 모여 있었기에 도시라는 이름을 사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며 도시를 읽고 해석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시읽기와 해석하기를 계속하되, 도시의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읽기의 정도와 해석의 심도를 가늠하며 진행하자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로서 마땅히 읽어내려 갈 수 있는 도시의 기억과 모습을 욕심 없이, 포기 없이 차분히 읽어내고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도시의 모든 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떤 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읽고 해석하면서 도시라는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해나갈 것인지를 지혜롭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로부터 도시읽기를 시작하고 이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연결하며,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도시읽기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 하겠으며 이제 재단은 도시의 문화를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응당 도시를 읽고 해석해나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 **: 도시문화 현장연구 인재 발굴·양성하기 - 도시적으로 읽고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사회적 상상력**

지금 도시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는 누구일까? 아마도 도시에서 의미있고 멋진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인재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질문해보자. 지금 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아마도 필자의 생각에는 도시를 읽고 문화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도시해석자, 도시번역자로서의 연구인재일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를 도시로, 도시를 문화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도시 해석자, 도시번역자의 능력을 갖춘 현장의 연구인재들이 도시에서 매우 많아져야 한다.

도시에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당연지사 연구는 할 것이다. 그러나 줄기차게 오랫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도시를 읽어나가고, 거기다가 이를 문화로 해석하는 도시문화연구자는 많지 않다.

특히 도시의 문화기획 현장에서 원하는 도시문화 연구는 학문과 이론에 입각한 도시지식 중심의 데스크리서치 연구보다는 지역에서 도시를 직접 들여다보고 공감하면서 체득한 도시감성 중심의 필드리서치 연구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1900년대 초 도시파리에서 아케이드프로젝트를 쓴 발터벤야민의 말과 그의 일상행동처럼 도시를 들여다보며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도시산책자가 되어 도시를 바라보고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도시를 읽고 문화로 해석하는 도시문화현장연구는 문화도시에서 그리고 도시재생과 문화적 지역재생에서 문화기획과 지역경영 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그 전단과 과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통찰의 지혜정보이자 도시의 환경과 맥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필수적 기초 작업이기에 그 중요성은 별도의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연구작업이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를 하는 도시문화 현장연구자들의 능력은 문화적 관점의 언어와 도시적 관점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면서 문화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도시의 문화기획을 위해서 도시 자체를 바라보고 읽고 해석하여 문화의 원천소스와 아이디어로 치환해내는 작업으로 문화적 전환의 현장이론적 근거를 생성할 줄 아는 능력을 선보인다.

또한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이 중요해지고 문화와 도시의 결합 및 연결을 통한 장소기반의 문화기획이 중요해지는 지금 도시를 읽고 문화로 해석해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도시능력자로서의 인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된 시점인데,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치와 능력을 가진 도시문화현장 연구자는 매우 드물고 거의 희귀할 정도이다.

이제 지역의 문화재단에서는 자신들의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바라보고, 도시를 즐기치게 들여다보면서 도시를 읽고 문화로 해석하는 도시문화 현장연구자들을 발굴하거나 양성하는데 힘써야 할 때이다.

종합하면 지금 도시에서 원하는 인재의 상과 실제 필요한 인재의 상이 다르며 도시에서는 도시를 문화로 해석·번역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 도시문화현장연구자를 찾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중앙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하였고 이제는 각 지역마다의 양성교육시스템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약 7~8년의 시간 동안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인제는 모두 지역현장 활동가 또는 기획자들이 대부분이다. 초기 현장활동인력의 중요성에 의해 교육커리큘럼과 양성방법론의 형태가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이제는 전문인력의 영역과 범위 그리고 교육과 양성의 방법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의에 있어 현장활동가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자를 전문인력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재단은 이제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과 사업을 넘어 지역현장연구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포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지역의 문화현장연구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이는 재단에서 한 번도 가지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새로운 교육 양성방법의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도시문화를 경영하는 능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도시를 위한 다채로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자본의 역량을 다각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도시와 문화사업, 지역경영의 조화 꾀하기 - 문화都市는 만능의 방책이 아닌 경영의 방책**

도시에는 수많은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이 조성되고 그에 따라 많은 문화적인 일들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사업과 프로젝트들 또한 펼쳐지고 있다.

지금 지역의 도시에서는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의 요구와 필요환경에 의해 수많은 문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도시 사업과 지금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진행해야 할 많은 문화사업 및 프로젝트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풀이의 논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 중 하나는 “우리都市는 문화도시사업이 있으니 이제 다른 문화사업은 필요 없어, 문화도시로 다하지 뭐.”라는 도시 내에서 나타날 생각과 또 하나 “이 도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제 별도의 지역문화사업은 지원하지 않아도 돼.” 라는 도시 외적으로 나타날 생각으로 이로 인해 매우 몰지각한 이해와 단편적인 생각으로 함몰 될 수 있는데 보다 입체적으로 도시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도시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일들을 꾸릴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은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문화도시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거나 풀려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사업들은 모두 각자의 기능과 역할,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문화도시의 범위 안에 편입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도시가 요구하는 수많은 문화적인 일들과 사업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시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과 일들과 함께 적재적소에 연결 및 배치되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면서 문화도시답게 종합적으로 경영해나갈 수 있는 계획능력과 운영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작업도,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들을 다시 지속하는 작업도, 현재 추진 및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옆에서 연결 및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모색해야 하는 작업도 모두 필요해지게 된다.

이미 논의하였듯 문화도시는 분명 지역의 문화경영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문화로 만능하게 만들어주는 대안적 도구책마련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문화로 경영하게 만들어가는 전략적 종합전략 차원의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도시경영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과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만들고, 조합하고, 연결하고 분해하며,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가져야 하며 이와 같은 경영능력의 범위 안에서 문화도시는 수많은 문화사업들과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조합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도시를 관장하는 문화도시센터와 문화사업을 관장하는 재단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대한 불협화음이 곧 발생할 것이라 사료된다. 문화도시센터는 도시의 공공조직이 되어야 하는가?, 재단 안의 전략조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적인 민간조직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역시 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영의 차원에서 두 조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며, 문화로 도시를 고민하는 가운데 경영의 중추가 되는 도시의 문화조직 및 거버넌스체계를 새롭게 구상하고 문화도시 사업과 다른 문화사업들이 하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 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요구된다.

## 4-2.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살펴볼 만한 이슈와 의제들에 대한 제언

### : 도시와 도시의 만남 주선하기 - 도시가 도시를 바라보고 이야기 하는 대화의 장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과 같은 도시기획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필자는 단연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역할은 도시와 도시의 문화적인 만남과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시가 도시를 만나 서로 바라보고 응대하여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도시의 꿈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위해 지역들이 상생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도시대화의 장을 열고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은 전지연이 어떤 한 도시의 단체가 아니라 많은 도시의 중추기능을 하는 재단들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자 역할이며 도시 모두를 위한 공적연합단체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위상에 걸맞는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도시문화에 대한 포럼으로부터 워크숍, 콜로키움, 컨퍼런스 등을 운영하면서 되도록 많이 도시와 도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하며, 이 대화의 장을 통해 지역의 도시들은 도시를 문화로 기획하는 문화기술과 방법론들을 공유하고 각 도시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발견하거나 공동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는 나아가 도시와 도시가 만나는 장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도시기획에 관계되는 사회 각 분야가 만나는 가치사슬연결의 장으로 확대 및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에서 문화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생성하는 생산구조와 협업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획의 장으로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화를 통한 도시전환과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이와 같은 도시대화의 장에 대해서는 작년 2019년 문화도시의 추진을 위해 각 도시가 모여 함께 만든 문화도시상생협의체의 향후 행보를 눈여겨볼만하다.

문화도시상생협의체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지자체들(중앙정부가 아닌)이 모여 문화도시로서 도시상생을 위해 함께 모이고 스스로 고민하며 활동하는 도시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2019년 10월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모여 열린 ‘문화-도시-재생 공동연수회’의 특별 행사에서 문화도시상생협의체 발족에 대한 공동의 선언을 하고, 2020년 현재 본격적인 상생협의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도시상생협의체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전체적으로는 가입도시 중심으로 문화도시 추진 및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의 활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도시상생협의체 가입 지역이 참여하여 의제를 논의하는 정기회의, 문화도시 추진 및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공동 개최 및 참여,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상호 간 서로 연계 및 교류하는 행사 및 활동, 지역과 지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문화도시 기획 사업 및 활동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지켜볼만한 지점은 도시대화에 대한 노력과 활동으로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상생협의체에 가입한 각 도시가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출현하여 도시와 도시가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도시대화의 장을 열어갈 예정(이와 같이 도시들 스스로 함께 출자하고 공동의 협업과 행동을 하는 도시상생의 활동도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다.

또한 정책협력자로서의 활동으로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주관자인 문체부 및 2020년부터 사업추진관리전담기관이 된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법정 문화도시의 본격 사업추진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각 도시는 자신들의 도시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활성화하고 도시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향후 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대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도시상생협의체의 향후 향방을 주목해볼 만하다 하겠다.



참고로 전지연에서도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등 장소기반의 문화라는 지역이슈에 대응을 준비하게 된다면 전지연과 문화도시상생협의체의 공동협업을 구상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듯하다.

### **:문화로 도시기획의 또 다른 길 트기 - 도시기획과 관계된 기관들과 연대와 교류점점 늘리기**

사업실행 이슈 및 이슈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1700% 수준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행 건수는 단 7건, 9건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재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참여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지연 차원에서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하거나 문화적 관점의 재생, 즉, 문화적 지역재생에 대한 사업기획의 기회를 열어주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지연이 도시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기관 및 단체들과 교류를 가져야 한다. 문화분야의 각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하며 도시를 의논하고 협업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기획 관련 단체로서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이론적 연구와 학문으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설계학회, 도시재생학회, 지리학회 등과도 연결하여 교류해야 하며 도시의 공적중간지원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도 협력하면서 문화로, 교류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와 관련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와 사회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간지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사회 각 분야와 연결되고 새로운 지경과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종합적인 연결의 구도 안에서 도시기획 작업의 주류로서 정착할 수 있는 틈과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 :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과 도시정책 함께보기 -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정책의 연결구심점

지역문화정책계획과 추진의 구도 안에서 지역문화재단과 전지연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재단들의 이슈 트렌드로 떠오른 문화도시와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이 자신들의 도시가 수립하는 지역문화계획에서 어떤 위상으로 어떻게 기능 및 역할하면서 그 정책적인 위치를 포지셔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의 문화자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각 광역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상 기초지자체가 수립하고 광역에 전달-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세부시행계획 안에 문화도시와 도시재생(문화적 지역재생)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할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지연은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들과 함께 각 기초지자체의 지역별 주요 의제와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논의의 범주 안에서 연합으로서의 공통된 지역문화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기초단위 지역문화정책계획의 주요한 흐름을 잡아간다면 문화자치 관점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전지연이 각 지역문화재단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슈와 추진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도시적 관점에서 수렴하고 종합해나갈 수 있는 문화도시와 어떻게 결합하고 연결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향후 지역문화정책에서 다양한 정책 중심을 만들어가면서 문화자치에 대한 새로운 정책구심점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기초단위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수립을 소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전지연이 지역문화재단들과 함께 기초지자체의 문화정책 파트너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화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전혀 신경쓰지 못한 의제를 살펴보고 신경쓰기 - majority vs minority(hidden majority)

이는 이 글의 마지막 제언으로 전지연 그리고 전지연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살펴볼 만한 의제가 되는 이야기로 도시의제에 대한 균형을 꾀하는데 지역의 힘을 기울이기 위한 제언이다.

도시는 중요한 것들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들의 연결관계, 인과관계,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하는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 이렇듯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도 같은 도시에서 도시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중요가치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으며 도시 이슈 및 트렌드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도시에서 중요해서 이슈가 된 가치가 언젠가는 그 중요도가 사라지며, 중요하지 않았던 의제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슈의 파도를 몰고 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슈 트렌드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많은 의제는 결국 중요의제(majority)와 비중요의제(minority)의 구분이 아닌 중요의제(majority)와 감추어진(또는 숨어있는) 중요의제(hidden minority)의 구분이라 보아야 하며 향후 도시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도시의 중요가치이자 의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전지연과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지역계획 차원의 영역에서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을 다루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번 2020 이슈 트렌드 조사 결과에서 비중이 높은 이슈로 판단된 의제뿐만 아니라 비중이 높지 못했던 이슈, 선택되지 못한 이슈, 그리고 논의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찾아 이와 같은 이슈들이 지역에서 왜 중요도 및 선택이 낮거나 살펴보지 않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중요의제(majority)와 감추어진 중요의제(hidden minority)로 구성될 수 있는 전체적인 알고리즘 구조로서 지역의 이슈 트렌드를 바라보고 이를 지역계획이자 도시기획으로 엮어내는데 신경써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와 의제를 가볍게 살펴보고자 한다는 의뢰를 받아 시작한 글이 내 자신의 너무 많은 고민 속에 돌고 돌아 길고 심란한 글로 마무리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새벽, 글을 내려놓는 지금만이라도 명료하게 끝맺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문화의 시대, 지역의 시대가 조금씩 도래해오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 전지연과 지역문화재단 모두는 문화로 시대를 그려나가는 길잡이로서 그 새로운 여정을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나아갈 것을 고대해본다.

## [생활문화] 생활문화 이슈 - 문화권을 위하여

우지연 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 1. 생활문화와 문화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문화 진흥으로 이는 연관키워드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영역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생활문화도 그 중 하나이다. 생활문화의 출발점이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에서 생활문화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문화기본법의 문화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문화권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권’은 국민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 권리로서 생활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환경으로 더 나아가 문화적 삶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이슈 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문화가 이슈트렌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실행사업은 많지 않은데 이는 생활문화 영역의 실행사업 대부분이 문화예술 교육 형태를 띠고 있거나 동아리 지원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생활문화의 토대 형성 및 확산과 관련해 문화예술교육 및 동아리활동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어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동아리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공간운영의 경우 지

역주민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책 중 하나이며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이어서 지역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지역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은 동아리 사업과 지역주민에게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공간 운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생활문화와 동아리 사업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동아리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강사 지원을 통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사업 혹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동아리 지원사업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손쉽게 접근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문제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동아리 지원밖에 없는가와 지역 현실에 기반한 동아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인데 전국적으로 천편 일률적인 사업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동아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을 통해 혹은 자생적으로 동아리가 형성되고 운영되어 왔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의 동아리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대부분이다. 동아리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강사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는거나 교육 후 발표회를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는 동아리 활동 자체를 오히려 학습과 발표라는 기능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아리 요구 자체가 그러하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를 기획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요구 자체를 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동아리 지원사업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 첫째, 동아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1년차 동아리와 10년차 동아리 모두 교육과 발표 지원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동아리 운영활성화이며 생활문화 활성화인가 하는 점에서 현재의 동아리 지원사업을 돌아 봐야 한다. 동아리는 자생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모임으로 흥망성쇠에 개입하기 보다는 동아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스스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동아리 현황, 동아리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동아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지, 어떤 강사들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부터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라든지 동아리 간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까지 동아리 활동을 위한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동아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강사풀을 구성하여 동아리가 원하는 강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장비를 빌리고, 지역 내 동아리 활동 현황 공유를 통해 다양한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다.

#### 둘째, 단순한 기능교육을 넘어선 문화감수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동아리 교육이 필요하다면 상시적인 기능교육은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없는 예술가와의 만남이나 동아리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 등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아리 모두에게 열린 동아리 아카데미와 같은 형태를 통해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해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역량과 문화감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 동아리가 아닌 경우 그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 회의의 진행 방법이나 운영진 선출방법, 예산 운영 방안, 장비 활용법, 구성원 간 갈등 해결방법 등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동아리에 대한 교육 지원은 취미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의 활력을 만들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지역의 생활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동아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임 그리고 개인으로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은 ‘행복한 개인’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 3. 생활문화와 공간 운영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공간운영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지역문화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문화재단의 본질적인 역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활문화공간 운영은 중요한 실행사업이자 이슈임에도 기능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문화공간 운영은 별도의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단순 관리 차원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로 지역 주체 발굴,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나 활동공간 제공, 문화커뮤니티 형성과 관련해 생활문화공간 운영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주민 서비스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목적과 공간운영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문화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활문화공간 운영은 관리자를 배치해 운영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생활문화공간의 고유한 목적과 역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생활문화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인지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기반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며 또 이는 지역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실현을 위한 방향과도 부합해야 하나 현재는 시설 관리 차원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수탁단체의 전문성인데 지역문화재단 위탁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공신력 같은 장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생활문화공간 고유의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 내에서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 내부에서 생활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면 관장공모제 등을 통해 민간의 전문역량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생활문화공간의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공간이 아닌 문화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적 거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공간 운영 자체에 대한 집중과 고도의 운영 전문성이 요구된다. 생활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 지역과 생활문화공간의 접점, 지역문화재단과 생활문화공간의 접점에 따른 생활문화공간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활동방안을 기획할 수 있는 운영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책임자인 관장을 민간에서 공모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방법으로 3년+3년의 임기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을 가지고 생활문화공간 운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4. 생활문화와 파트너십

지역문화재단은 지원기관, 민간은 피지원기관의 관계가 아닌 지역문화재단과 민간이 파트너십으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재단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생활문화와 관련한 기관, 단체, 공간, 사람을 망라한 만남의 장이 필요하며 여기서 지역 생활문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만남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의 방향과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생태계 관점으로 생활문화에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민간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관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포럼 통계를 통해 본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과제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최근 3년간의 사업과 포럼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 폭이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숫자로만 본다면 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문화재단, 특히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시설운영 중심의 고정된 사업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사업의 폭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아 왔다. 몇몇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의 안정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보이며 지역문화재단의 모델이 되기도 했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단의 숫자에 비하면 아직 일부의 현상으로 보일 뿐이었다. 물론, 사업과 포럼의 개수가 활성화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숫자 이면에 있는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실행사업과 포럼의 증가폭 자체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들의 행보가 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으로 사업의 증가 현상은 다수의 문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과 담론의 폭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각 지역의 문화적 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가 진행된 문화재단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포럼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구분	사업수	전체 순위	비율
2017년	170	2	14.3
2018년	174	2	12.2
2019년	214	2	14.4
총 합	558	2	13.5

#### <2017-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

문화예술교육 실행사업 수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44개가 증가해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재단 수(자료분석 36개, 홈페이지 분석 17개)를 염두에 둘 때 재단별로 3-4개씩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순위도 두 번째를 유지하고 있어, 재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구분	포럼수	전체 순위	비율
2017년	11	9	5.0
2018년	15	10	4.6
2019년	35	11	5.0
총 합	61	11	4.9

#### <2017-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포럼 수>

포럼의 경우는 24개가 증가해 21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증가율만 보면 포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만, 실제 숫자에서는 조사대상 재단별로 1회씩도 진행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재단 사업의 12-14%의 비중을 갖고 있지만, 포럼에서는 5% 안쪽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럼 주제 순위에서도 9위에서 11위를 오간다. 사업과 포럼의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문화예술교육은 거의 모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전히 가장 많은 사업은 공연/전시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새로운 정책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통

#### 4.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포럼 통계를 통해 본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과제

해 지역의 문화활동 지형을 재조직하기 위해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 편으로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방법론을 새롭게 짜기 위해 열리기도 한다. 포럼이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담론의 심화와 방법론의 변화 또는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고 할 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포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실행에 비해 담론 차원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론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방법론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질적으로는 심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지역문화재단 역시 이런 상황을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광역문화재단이 국고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기초지자체 문화재단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서비스라기보다는 시설 위주의 활동 중심에 묶여있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부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어떻게 담론을 심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확산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자기 직무 영역으로 고민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예술교육이 핵심 사업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담론 차원에서 논의가 적다는 것은 방법론의 갱신이 없이 통상적인 사업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통계는 지역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지역권역으로 나눠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구분	수			비율			순위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수도권	115	121	133	15.2	13.2	13.8	2	2	3
강원	15	8	8	14.9	10.4	13.8	2	4	2
경상	25	23	51	12.3	9.3	18.0	2	5	2
전라	2	7	8	8.3	9.9	11.0	4	5	4
충청	13	15	14	12.4	12.0	12.6	3	3	3

<2017년도-2019년도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문화재단의 숫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개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재단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순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구분해 봐도 문화예술교육은 재단사업의 중추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럼을 살펴보면 이 비율은 무너진다. 아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문화재단의 포럼 수를 지역별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구분	수			비율			순위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수도권	9	7	23	7.14	4.02	7.37	5	10	6
강원	-	-	6	-	-	5.13	-	-	9
경상	2	7	6	5.26	8.64	3.06	9	5	11
전라	-	-	-	-	-	-	-	-	-
충청	-	1	-	-	7.14	-	-	3	-

〈2017년도-2019년도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포럼 수〉

역시 수도권에 문화재단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경상권을 제외한 강원, 전라, 충청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포럼이 아예 열리지 않은 해가 더 많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럼의 개최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담론 확산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그런 담론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셈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8-2022 전략계획을 통해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전략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 단위 추진체계 및 협력망 구축 지원이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은 이런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들이 미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이슈는 수도권-지역 구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서울이든, 경기도, 인천이든 하나의 지역이다. 인프라와 자원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수도권-지역 구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의제 설정과 사업세팅에 몸을 맞춰야 하는 지역의 문제는 서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진단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구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보다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위주의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한 마디로 전국에 8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이 있고 많은 수의 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 연계와 지역협력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질적 심화를 고민하는 곳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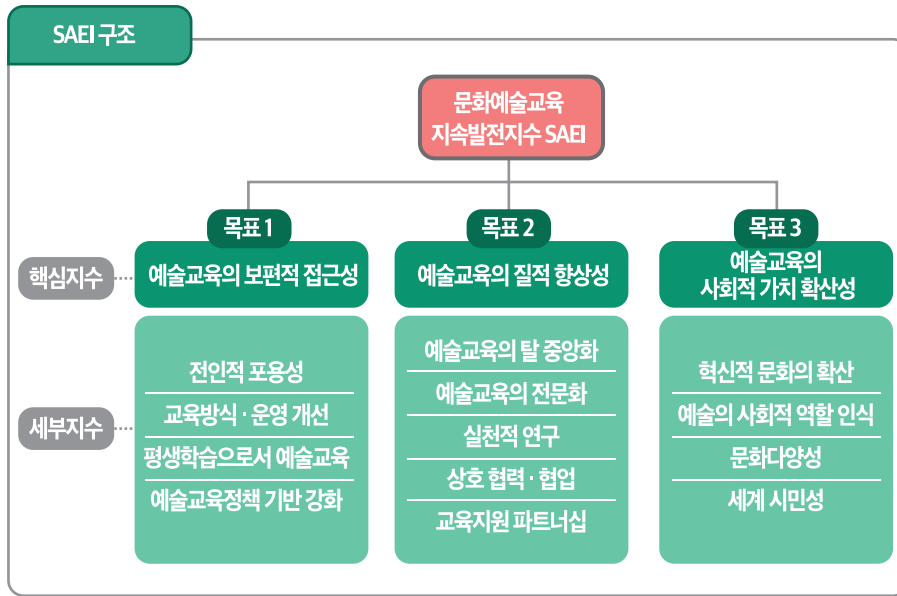
그렇다면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화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까. 세세히 이야기하자면 많은 과제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8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기초연구」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선포된 ‘서울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를 개발해 발표했다. 세 개의 서울어젠다 -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 에 대해 세부지수들을 만들어 어젠다 발표 이후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연구를 통해서도 양적인 팽창이 두드러졌으나 질적인 심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항목에서 기초문화재단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과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은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교육 정도, 사회적 배경,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실, 문화재단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블로그)<sup>1)</sup>>

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예술교육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협조가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시행 초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었던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사업이 정확한 평가과정 없이 유아무야되었던 일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고착되어 기초단위의 활력을 살리는데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에는 문화예술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확대를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확장,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단위의 세팅까지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 영역과의 연계협업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비해 보편서비스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전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일정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들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확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학교들이 1인 1악기를 내걸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통해 예술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가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ezine&logNo=221520416521>

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떠오른 생활문화 파트와의 결합을 통해 도시 차원에서 이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은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문화예술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도 이 어젠다에 포함된다. 생활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심화를 성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상 지역이 넓고 포괄적일수록 공급형 정책의 한계가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지역의 구체적인 맥락들을 이해하고 각종 자원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일은 기초단위, 혹은 그보다 더 좁은 생활권역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때 가능해질 것이다.

질적 향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육의 질은 교육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참여하는 예술가, 교육자 매개자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 일부 재단에서 예술강사 등을 상대로 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문화재단은 광역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구성원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COP 활동을 비롯한 소규모 단위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십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을 상상했을 때, 문화재단만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지역의 모든 이슈들을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의 틀을 짜고 이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문화재단은 자주 실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민간의 역량을 성장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더 가깝다. 재단이 모든 정보와 예산과 인력을 독점한 상태로 스스로의 성장만을 일구는 것은 외화내빈의 결과를 불러오기 쉽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은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세계의 구조와 사람들의 삶이 비루해지는데 문화예술교육이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사회운동과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면 문화예술교육은 삶과 동떨어진 유희가 되어버리고 만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완성과 동시에 세계와 나와의 관계를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인간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갈등이나 공동체의 이슈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체화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국 문화재단들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사업과 포럼 수를 기반으로 몇 가지의 과제를 꼽아 보았다.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과 예산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현실에서 보자면, 조직과 예산과 시설을 비롯한 가장 우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하되 현재 상황을 한계로만 인식하지 않는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기초단위에서의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과 성장,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과제들이다.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담론확산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꾸준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 1. 2020년 상반기, 당신의 재단은 무엇을 했나요?

매일매일 확진자, 검사진행, 사망자, 격리해제의 숫자를 바라본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문화예술을 힘겹게 막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력해지는 우리와 싸우고 우리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밤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침에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책상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기초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글은 잘 쓰지는 못해도, 늘 가지고 있던 고민을 중심으로 풀어나갔을 텐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안정기에 들어가면 ‘코로나 이후에 대한 문화정책의 새틀짜기’ 등의 담론들이 각종 포럼과 논의의 장을 가득 채울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상처와 결과의 흔적들 속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떠나, 지원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은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 논의될 테니...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그리고 무엇이랄도 한 재단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재단에 대한 평가 속에서 각각의 재단들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더구나, 80여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수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80여개의 기준이 되기도 할 테니...

코로나 초기 대한민국이 코로나 오염국의 오명을 중국과 함께 썼으나 감염의 독이 터진 상황 속에서 타 국가와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대처해 왔는지가 판명 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때 문화재단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 2. 우리는 이슈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조사연구의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이슈 트렌드와 실행사업의 상관관계는 ‘욕구(욕망)와 현실의 차이’처럼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온다.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와 요구는 재단의 역할 환경에 문화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행사업은 여전히 공간에 갇히고 문화의 민주화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찾는 ‘문화정책’ 담론들을 생산하고 지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만들어 문화재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나, 이슈트렌드를 ‘누가 만들어 내고 누가 이끌려 가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늘 지역문화분권과 문화자치시대를 역설하며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 온 우리 스스로의 키를 쥐고 있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함도 감출 수 없다. 중앙이 주도하는 사업에 우리 스스로 줄을 서고 ‘문화도시’ 사업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어찌지 못한 상황들이 분명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에.

또한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공간관리라는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설립된 문화재단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문화공간, 청년공간, 문화공간 등도 재단으로 물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생태계 주체들과 협업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사업들을 함께 발굴하고 실행해 초기 마중물들을 부어야 할 재단들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공간관리라는 틀에 갇혀 버렸다.

이는 우리의 몸집을 무겁게 만들었고,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 규칙들로 행정의 포로가 되었다. 능동적인 공간운영과 매 시기 시기마다 제기되는 문화이슈와 지역이슈에 선제대응할 수 없는 관료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 3.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가?

이번 이슈트렌드 분석의 한 축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포럼의 내용과 결과, 수치들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잠시 재단에서 진행하는 포럼의 풍경을 떠올려 보자.

포럼의 주제는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인 것 같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발제는 주로 지역 외부의 사람이 맡고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흐름과 변화, 이 사업을 문화재단이 해야 하는 당위 등을 이야기한다. 이슈를 던지는 듯 하지만 일종의 계몽의 장이기도 한 것 같다.

토론자들은 지역과 지역 밖 사람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며 각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재단에 요구하는, 늘 어떤 자리에서든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가끔 진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한다) 흘러간다. 토론 말미에는 재단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사람이 문화재단과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늘 반복되는, 어떤 민원에도 만능 대응할 수 있는 답들이어서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예산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현장에 함께 할 주체와 사람이 없어서

더불어 근거가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뒤 비슷한 이야기지만 문화재단이 막 설립되는 봄이 일었던 10여 년 전에는 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며 예산 총액제와 인사권의 독립을 주장했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유효하지만)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에 80여 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는 80여 개의 비교치와 기준을 얻었다.

즉, 예산이 있고 직원이 많음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재단이 있으며 근거와 제도가 없음에도 중요한 시기 시기마다 현장의 주체와 사람들을 찾아내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재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문화재단이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도 중앙과 광역단위의 공모사업을 조직해 문화재단의 고유한 역할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문화재단도 이제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한계(?)와 조건은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 4.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현장을 배우기 이전에 행정을 배우는 현실이 문제일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이전에 민원대응 기술을 먼저 배워서일까?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안되는 것들에 편리하게 적응해서일까? 자신의 업무 속에서 일의 재미보다 일의 (작은)권력을 먼저 맛을 보아서일까?

많은 문제와 조건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방식과 방법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재단의 역할을 해석하고 규정을 일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의 근거와 해야 할 일의 방법을 위하여 만든 규정을 우리는 주로 안되는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 5. 문화재단이니까 해야 할 일이잖아. 우리는 지원조직이야!

후배들에게 문화재단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야기가 있다. 마을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있고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불을 안 끄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을 꺼야 하는 것 아닌가. (굳이 여기서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는 건 무슨 이유인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이들을 위해 문화재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이 난 마을에 출동한 소방관의 역할이 아닌가.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주민과 마을을 위해서는 예술방역과 문화테라피 등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과 문화예술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재단만 남겨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6. 위기 속에서 드러난 민낯, 우리는 무엇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가?

문화재단의 역할 이야기는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왜 하지 못했는가?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역할모델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많은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왜 실천과 실행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남탓이 아닌 우리 조직 내부의 반성과 혁신 속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이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 7. 유연해야 한다.

**의사결정은 빨라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나누고, 완벽한 방법과 절차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일단 일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려고 만든 규정이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키우고 되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의사결정의 핵심은 임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현장과 함께 성장해 오며 전문성을 쌓아온 사업담당자들의 판단과 축(?)을 신뢰하며 함께 결정해 주어야 한다. 물론 리스크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결정과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연 문화재단은 몇이나 될까? 또한 우리의 이사회는 현 사태에 대한 문화재단의 긴급 대응, 예산확보와 투입 등을 결정할 수 있을까?

많은 문화재단들이 협력과 협치를 이야기하며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혁신을 이룬다면 문화재단 이사회만큼 더 훌륭한 거버넌스가 또 있을까?

## 8. 예술과 시민이 만나는 방식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

만날 수 없는 시간을 오래도록 견디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변화와 위기관리자로서 재난 시기의 예술 접근성과 문화적 태도에 대한 성찰로 문화예술

#### 5.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경계에서 판단하지 않고 망설여왔던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새로운 지대에 대한 무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우리의 장르, 단체, 영역을 가르는 관계, 필터, 장소, 취향, 지향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조화로운 공존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부여하며 감각하는 기술과 사유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이슈를 조직해야 한다. 지역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람을 연결하고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을 통해 우리의 시각, 정보, 해석, 맥락을 유통하는 지혜의 거버넌스를 작동시켜야 한다.

전략적 대안을 구축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예술을 접속해 가는 활동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간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야 할 시점이다.

## [공간운영] 기초문화재단의 지역문화공간운영 활성화 방향

이혜진 광명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현재 글을 쓰는 2020년 4월, 전국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대부분의 문화공간의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시점에 공간에 공간운영에 대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쓸쓸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로 지자체별로 설립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의 공간운영에 대하여 순간순간 떠올렸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책제안이라던가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지역 내 민간위탁으로의 문화공간 운영자로서의 생각해 왔던 것과 문화재단에서 인수한 공공문화공간에서의 생각들을 가볍게 공유하며 앞으로 새로이 문화재단에서 공간을 운영하게 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내어 본다.

내가 일하고 있는 광명은 인구 32만의 크지 않은, 그리고 서울과 매우 근접한 소규모 도시이다. 막연히 공공문화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단순한 마음에 살고 있는 광명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광명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도 광명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에도 광명에서 문화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기초문화재단 설립 전과 후 모두 같은 문화공간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지역 내 공공문화공간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오신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전국 기초단위에서의 문화재단 설립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문화재단의 설



립과 함께 지역 내 문화공간의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질 것이다. 광명문화재단 또한 공간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하나마 한해 한해 더 발전된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가는 중으로 광명문화재단에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 한다.

## 1. 기초문화재단의 설립과 문화공간

전국에 공공문화시설은 2020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예술가의 창작공간, 생활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국에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면서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을 기초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 :문화시설 조성 추진현황

	공공 도서관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 문화센터
~1959	9	1	-	-	28		
60년대	14		-	-	74		
70년대	52	6	-	3	16		
80년대	90	9	2	24	24		
90년대	212	43	7	64	61	20	
2000년대	315	180	25	90	23	77	
2018년 현재 총계	1,042 (전체 1,043)	349 (전체 873)	67 (전체 251)	251	231	100	132

<자료 : 2018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생활문화센터현황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020년 현재)>

여느 기초문화재단의 설립과정에서나 있는 사안이지만, 중앙정부나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지자체는 전체 지역살림 중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편이다. 일단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 이후의 문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들의 공동체성, 심리적 안정감을 점차 추구하는 분위기인만큼 이 부분은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도 먼 이야기인 것은 사실인 듯 하다.

기초문화재단 설립 시 지역의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공간, 박물관, 미술관들이 주요 운영기관으로 편성되며, 더 나아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설립된지 10여년이 넘고 운영의 안정권에 접어든 1기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들어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공간의 운영을 제외하고 그 외의 기관들의 업무를 이관하거나, 청소년이나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재단이 지자체에서 신규 설립되어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재정규모가 넉넉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운영 공간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대부분 문화재단이 이러한 역할까지 도맡아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순간,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있어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어있으며, 타당성연구용역의 내용에서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사업, 문화공간,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하게 되는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역 내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의 사업에 대한 평가비교의 비중보다는 예산절감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되는데, 대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대한 저항(기존 문화공간을 위탁운영하는 단체들, 지역의 문화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집중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가장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화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문화재단 설립관련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문화재단에 주요업무를 설립 초반부터 신규사업들로 다 꾸릴 수도 없는 일이니, 대부분의 시작하는 기초단위의 문화재단들이 기존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던 문화공간들을 새로 설립하는 문화재단의 주요업무로 하여 일정정도의 재단의 규모를 구성한 다음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니 무언가 새로운 사업은 추진해야하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으니 방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인수한 공공문화공간의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다. 광명의 경우에도 기존의 공간을 인수하면서 공간에 상주하는 인력들을 1명씩 줄여 문화재단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어떤 의견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문화재단의 전산시스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배치된 인원들이 시설운영에서 회계까지 전 과정을 다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라는 출자출연기관 규정을 지키고 더 많은 서류와 더 많은 보고체계가 증가되어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감소를 크게 실감하긴 어렵다.

## 2.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문화공간

2020년 1월, 전국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 85개의 지자체가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곳인 광명문화재단 또한 2017년 4월 출범하여 광명의 문화사업 및 주요 문화공간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는 공연·전시 및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처음 설립된 1989년 광명시민회관을 시작으로 지금의 생활문화공간인 광명문화의집·하안문화의집을 연이어 개관하였으며 2017년 광명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광명시민회관 및 문화의집의 인수,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을 재개관, 신규 개관하여 시 문화공간을 확대 운영 중이다. 광명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 공공문화공간의 80%정도가 문화재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2020년 인수예정인 신규 공연장, 새로 개소하게 될 생활문화센터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 문화공간들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문화재단이 각 지자체에 설립되기 전에도 각 지역의 문화공간은 운영되고 있었고, 나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곳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에는 그 지역의 공공문화공간은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 지자체 출연기

### Ⅲ. 이슈 트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

관이기에 민간기관들보다 엄격한 규정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보다 더 지자체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 공공공간의 운영을 맡기려 하는 이유도 있다.

광명문화재단은 2017년 설립 첫 해 순차적으로 광명 내 문화공간을 안정적으로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설립 3년차인 2020년 현재 문화공간의 인수·유지운영에서 더 나아가 지역 내 각 거점별 공공문화기관으로서 기능 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모색 중에 있다.

### 3. 문화재단에서의 공간운영의 장점

**첫 번째로는 기초단위의 문화공간의 전문화된 운영이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은 공연장과 연습실 대관 중심의 운영에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며, 공연장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면서 전문공연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장비와 공연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생활문화공간들은 동호회의 공간이나, 지역주민들의 예술활동의 실현공간이라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생활문화정책을 구현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공간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이용의 편리성 확대이다.** 문화의집이나 생활문화공간은 정비되고 통일성 있는 운영규정으로 시민들의 공간이용규칙에 대한 혼란을 줄였으며,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관리 지원으로 기존에 시설파손이나 이용환경 개선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간의 특성을 잘 아는 소수의 주민이 주로 이용해왔다는 모호한 오해들이 공간들에 대한 대관 및 공간이용의 통합운영과 공개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문화공간 운영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다.** 문화공간에서 일해 왔던 상근자(직원)의 입장에서 민간위탁기관에서 문화재단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되면서 2-3년 마다 돌아오는 위탁변경에 따른 고용과 직원복지와 관련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규모의 문화재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자체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사업, 국가정책사업 등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 4. 문화재단에서의 공간운영의 단점

**첫 번째로는 문예회관 중심의 공연·전시사업이나 지역축제추진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된 사업구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단의 공간에는 공연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문화공간인 생활문화공간이나 문화예술교육공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후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거나 인력투여에 비하여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업무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문화공간의 운영이 문화재단에 집중됨에 따른 거대화, 그리고 각각의 독특함으로 운영되던 여러 공간들의 문화재단의 운영방향에 의해 획일화 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공간들이 각기 다른 운영주체에 위탁되어 운영되었을 때 기본적인 공간의 기능외에 운영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독특한 공간만의 특색을 갖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같은 광명안에서도 하안문화의집은 미술, 문화예술교육영역, 광명문화의집은 음악 및 생활문화영역에 집중하여 운영되어 하안문화의집과 광명문화의집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왔으나, 문화재단의 통일된 생활문화, 공간운영 방침에 따라 두 공간이 운영되게 되면서 통일성은 있으나 위치상 지역 내 다른 위치에서 운영된다는 점 외에 각 공간별 특성은 크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운영인력의 행정화이다.** 문화재단으로의 전환은 시보조단체와는 다르게 행정공무원수준의 행정서류와 규정,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은 규정과 지침에 따른 시민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느 관공서의 문을 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운영되어야 하는 시민이용공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문화재단에서 시민이용공간에 배치되는 직원들은 시민대응의 업무사이에서의 피로감이나 공간운영에 매몰되어 기획자로서의 성장이 늦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적절한 교육워크숍과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5. 지역문화공간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바라는 점

기초문화재단은 계속하여 지역별로 설립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신규재단의 설립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로 설립되는 많은 재단들이 앞서 설립된 재단의 설립과정을 거치고, 더 붙어 지역 내의 문화공간의 운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문화공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문화재단에 문화공간의 운영을 맡기게 될 것이다.

기초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중 문화공간의 운영이 적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공간운영을 하는 인력들을 위한 전국단위 워크숍이다. 문화재단에서 공간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직원들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문화사업들의 실행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문화재단의 주요업무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같은 소외감과 시민대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공문화시설 근무자로서의 대응관련,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네트워크, 그리고 공공문화기관 외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민간문화공간 탐방 등의 내용을 담은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재단의 공공문화기관 운영에 대한 통계 데이터의 공유이다. 물론 이 부분은 공간운영에서만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문화재단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검토할 때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요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중요한 점으로 두고 있다. 각 문화재단 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운영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6. 정리하며

문화재단에서 공간을 운영하던 문화재단 아닌 다른 어떠한 기관이 운영하던 공간은 사람이 만나고 그 안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항상 시민참여와 관련된 문화포럼, 간담회 등에서 공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싶다. 그러기에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하든 그곳에 있을 사람, 그곳을 드나들 사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면 한다.

나름 생활문화공간에 재단 설립 전과 설립 후 일을 해왔기에, 위탁기관으로서의 문화공간과 문화재단 소속으로서의 문화공간을 조금이나마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문화재단이 운영함으로 인하여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단이 운영함으로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장점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초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고민들과 운영방향 등이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에서 논의되어 함께 성장하는 기초문화재단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마무리한다.



2019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 **IV.전문가 간담회**

**-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역할 -**

##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전문가 간담회’ -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역할 -

### 일 시

2020년 4월 5일 오후 2시 ~ 5시

### 진 행

권순석 \_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 참석자

손경년 \_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김혜진 \_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임

강원재 \_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현 \_ 지역문화진흥원 원장

추미경 \_ 문화다움 대표

### 주요의제

- 변화하는 지역의 문화환경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앞으로의 역할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의 역할

## 여는말

2020년 전국에 설립된 기초문화재단의 수가 82개(2020년 1월 출범일 기준)에 달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의 문화분야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문화재단 설립 초기)에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과 축제 등 사업 중심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문화예술진흥 뿐 아니라 공동체, 도시재생, 문화도시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단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국의 기초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사업과 포럼 등을 분석해 기초문화재단의 이슈와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 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공간운영, 지역축제 순으로 펼쳐졌으며 재단 관심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포럼 등 학술행사는 도시재생 18배, 문화도시 5.87배, 공간운영 4.56배 증가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 실무자들의 의견과 더불어 문화재단 이슈 전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그 결과를 요약해 실습니다.<sup>1)</sup>

한정된 시간에 지역문화재단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논의의 장이 다양화, 일상화된다면 지역문화재단의 긍정적 변화 발전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간담회의 녹취를 풀어 정리함으로 인해 다소 어색한 문장이 있을 수 있음에 양해 구합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좌담회로 진행하였음

### 첫 번째 키워드 문화공간 (공공시설위탁) .....

**권순석:**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문화재단을 의미한다고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당위는 민간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운영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부여될 듯싶다. 그런 명분하에 재단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경제이슈 관점에서 공간의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의 의미를 한정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산의 절감효과로 오관할 수 있다. 오히려 직접 운영할 때 100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운영했을 때 80원 정도가 되거나 혹은 자체재원충당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경향도 있음이 사실이다.

**손경년:** 앞으로 기초문화재단들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생기게 됨에 따라 재단의 공간운영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다양한 공간들이 생길 때마다 재단들이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간들이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추미경:** 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공성이 기반인 것인데, 공공이 생각하는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더더욱 주체를 다변화시켜야 한다. 여러 공공문화 공간 중에서는 수익성 모델을 같이 가져가면서 발전해야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주체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당장에 시행착오도 있고 책임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서울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공간들이 있다. 대부분 재단이 운영하면서 서서히 위탁의 형태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단이 운영하는 것들을 주체만 민간으로 바꾸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권순석:** 지금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 지역 행정이 운영하던 공공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대안 마련 없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추미경:** (재단연구를 하다 보면) 현실은 지역에서 문화재단으로 시설이 간다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준다거나 합당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이 얼마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봤을 때 못 미치는 곳이 많다.

**강원재:**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시설 위탁은 어떻게 보면 복합한 문제이긴 하다. 우리 같은 경우에 도서관 운영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하고 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출연사업, 아트홀 같은 경우 출연사업이다. 우리가 재단의 고유 설립목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일하는 직원이나 조직상에서 신분, 임금 상의 문제도 생겨나고 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다른 임금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상으로 맞추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 자체 목적사업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아동청소년과 사업이다. 도서관은 미래교육과 사업이고 아트홀, 문화정책, 문화협력은 문화체육과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구 전체의 도시를 놓고 같이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자기 비전을 창출해 가야하는 자기 완결적인 구조들도 필요한데 그 부분들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겨난다. 재단이라는 조직으로 통합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단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도시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장점이다. 한편으로는 지역 안에서 이런 시설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가 조심스럽다.

**권순석:** 앞으로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재단 위탁과 관련하여서 더 많은 논의와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두 번째 키워드 재단 전문성 및 역량 .....

**손경년:** 현재 문화재단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한 구직을 앞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의 하나로 보며, 직업인으로서 문화재단의 구성원이 된다. 알다시피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재단직원들이 공무원이나 예술단체 등과 만나게 될 때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간격이 생기는 것 같다. 재단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의 불신이 커지게 되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문화재단 설립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곳도 있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은 외부의 불신과 공격에 대해 방어할 때 가장 편안하게 선택하는 것이 관료적 운영방식의 선택이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성을 얼마나 확장하면서 경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빗겨나 있다. 사실 재단의 전문성이 발현되는 순간 주관적 가치를 가진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의 견해차이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를 피하고자 하거나 행정 과정이나 기준을 따르는 게 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협의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아쉽다. 다른 예로 문화재단은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는 평가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경영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부정부패 없이 행정절차나 법을 준수하며 운영해 왔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경영측면 외에 사업평가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영적 측면의 기준이 사업성과를 위해 설계하고 진행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단사업을 외부평가자(주로 행정학 기반의 연구소)가 행정 및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사업영역은 지향점과 가치 등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평가는 제외하고 경영측면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김영현:**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1차적으로 행정역량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역량이 안 된다면 파트너십에 대한 역량도 마찬가지고, 역량이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체되기 시작하고, 정체 되면 갑질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런 조직문화를 가지고 현장과 만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면서 조직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사다리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단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재단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계속 만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간에서도 재단 등 이런 구조를 자유롭게 넘나 들고 재단에 있던 사람들도 민간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재단의 직원들이 기획자인지 행정가인지 기획과 행정을 같이하는 사람인지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경계를 자꾸 넘나들다 보니까 현장의 전문가들에 대한 기본적 존중보다 재단이나 기관들이 자기 이해와 요구에 따라 선정하고 배제하는 경향들을 많이 봤다. 그러다보니 재단이 과연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단의 조직 구성, 조직 문화, 인력의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순석:** 사실 재단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아이টে를 기발하게 뽑아내고 트렌디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문제의식이나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보다 오히려 더 주목받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지만

#### IV. 전문가 간담회

다른 영역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역량이나 매니징 역량 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자기 기획 중심으로 가는 것에 따른 폐해가 김영현 원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현장을 배제하는 경향 등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추미경:**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재단은 왜 존재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당사자들로 보면 떨어지는 단위사업을 해내기 바쁘다. 성과평가로, 결과로 항상 받게 되니 대부분은 선배로부터 배우던 외부의 인지나, 주변 재단 동료들한테 서로 상호로 배우던 것들, 빨리 아이템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결과를 내야지 인정받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재단이 해왔던 사업들이 시기마다 달랐지만 대부분 제가 제일 처음 말했던 본질적인 부분은 지자체 사업들을 집행하거나 위탁하는 구조에 있다 보니 거기에만 머리가 커지고 나머지들은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재단의 인력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 역량을 키우자’, ‘동반관계 역량을 키우자’라는 단편적인 접근들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런 것을 하나의 기술로 생각하지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태도나 혹은 여기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재단이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던 왜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얘기가 되고 거기에 맞는 구조, 임기제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도 동의한다.

재단 직원이 어느 때부터 성장해서 최고 자리에 가는 구조로는 건강함을 가지기가 어렵고 재단이 하는 역할에 따라 사람들이 순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 변환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우리는 교육이나 역량에서 지금의 정책 이슈를 빨리 팔로 업하거나 지금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앞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육에서 크



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다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문화재단 인력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교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람 중심의, 혹은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슈를 해석하고 정책을 팔로 업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금 재단을 보면 초반에는 기획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들이 잘하면서 우를 범한 것은 강원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하려고하는 욕심이 과해지면서 약간의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열정이 많아지는 것인데, 최근 인력들이 대부분 재단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보니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세스는 행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업이 세팅되고 맞춰지는 과정이 꽤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역량을 강화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환기하거나 일깨워주고 혹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메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재단마다 교육, 회의 같은 것을 해보면 몇 년 전부터 그런 욕구는 있었던 것 같다. 당사자들이 모여 고민을 하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재단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인식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생각이 되어야 변화가 생기니까 문제를 현장의 이슈부터 끄집어내고 새로운 직원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런 예산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좀 만들거나 재단이 같이 출자를 해서 릴레이로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재단 직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다른 재단에 가서 살아보

#### IV. 전문가 간담회

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몇 년 된 사람들이 재단이 새로 만들어질 때 가서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

**김혜진:** 현재 직원들이 봤을 때는 실무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들의 실무능력이 아니라 재단에 대한 인식자체가 잘못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재단의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고 봤다. 지방의 한 재단은 시청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 문화기획자로서 여기 재단에 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휩쓸려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들의 인식을 바로 고쳐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재단 종사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교육이 뭔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용어정리를 다시 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리서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잘돼야지만 재단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문화역량이 강화되면서 문화생태계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 세 번째 키워드 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

**강원재:** 모두 만난다. 구청장님과 이야기해야 할 것은 구청장님과, 국장님과 이야기해야 할 것은 국장님과 하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까지 필요하면 다 만난다. 그리고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판들이 열리면 된다.

**권순석:**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는 실무자도 대표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결정의 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강원재:** 이제 기술의 문제인데, 재단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 구청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절차를 다 밟으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절차를 다 밟는다. 그리고 그때 이슈를 다 뽑아내라, 그쪽에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우리 쪽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다 정리를 하라고 한다. 그것을 계통을 밟아서 올라가고 그 계통 안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재단 대표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받아서 구청장 측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권순석:** 재단의 전문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구조에서 밀려버리면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로 귀결되어버린다. 종종 목격하게 되는 슬픈 현실이다.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다.

**손경년:** 저의 경우, 부천문화재단에서 꽤 오래 근무했지만, 천년만년 재단에 있을 건 아니니까 내가 떠난 뒤의 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까 고민을 하다가 재단직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주제를 스스로 발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100년 도시상상’이라는 중장기 문화비전 연구를 시도, 기본안을 만들어보았다. 이는 실행사업을 당장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제를 끌어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영감을 받고 실행사업을 구상, 상상해 보는 것이다. 물론 재단직원 내부만의 토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담론이 생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데, 앞으로 인적자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반화되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권순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현실적 고민이 재원, 인력이라고 한다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지역문화재단의 멤버십들이 모여 끊임없이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상시화하는 것을 부천에서 확대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 IV. 전문가 간담회

**강원재:** 사회적기업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변화를 시켜내고 조직을 순방향으로 만들어가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사람이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문화협력에서도 시스템으로 연구한다고 하면 오히려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트러블메이커이다. 지역에 가면 그 조직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렇게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발굴, 발견해내고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맞다고 지지해주는 식의 응원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조직 내에서는 왕따이고 정말 트러블메이커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손경년:** 시스템구축이 우선이나 사람이 중요하나 하는 문제는 당연히 둘 다 필요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재단 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는데 축적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몇 년 되지 않았지만 1단계를 한 뒤 2단계로 넘어가도록 계획을 하더라도 정부 예산(주로 문체부 예산)을 쓰는 과정을 보면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여 정산하면 그 사업은 완결된 것처럼 받아들인다. 특히 교육은 지속, 축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속사업이라고 할 때 중복사업이라는 혐의를 받기도 한다. 이는 재단 대부분 이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5년 동안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 수 없냐는 이야기를 문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재단이 존속하는 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교육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과제로 남아있다. 좋은 사람이 재단을 운영, 혁신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와 동시에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선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스템이 필요하다.

## 네 번째 키워드 재단의 역할 .....

**권순석:** 문화재단 설립 초창기에는 문화재단이 시설이나, 축제를 위탁받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다. 도청/시청/구청 문화예술과의 또 다른 이름이나 민간(위탁)사업소 개념이 아니라 도시차원의 전문역할들을 부여받고 있다. 소극적 영역의 문예진흥을 넘어서 도시문화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역문화이슈를 도시문화 차원에서 문화재단의 역할로 가져감으로 인해 문화재단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문제, 모든 전문인력이 문화재단에 포진되어 각 분야의 사업들을 전문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민간영역에서의 경계 문제도 이슈인 것 같다.

**김영현:** 민간과 공공의 역할에서 재단이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단이 민간하고 경쟁하는 경우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재단이 생기면서 지역문화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시정/군정 차원에서 재단이 정책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지금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영역들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단들은 생태계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봐야할 것 같다. 재단 중심으로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지역 내 파트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역으로 내려가더라도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파트너들이나 저변이 확장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 문제를 시설 하나를 넘어서서 그런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미경:** 만약 100개가 있다면, 20개 정도는 잘해간다고 할 수 있고 80개 정도의 많은 재단들은 거의 집행단위이다. 대부분 시설이든 행사든 사업이든 넘겨지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거나 그 사업의 속성에 맞게 매개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자체의지에 따라 수행의 대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작동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사업이 물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그런 환경을 계속 조성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재단은 사실 공공시설로 민간이 함부로 위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의 주체를 인큐베이팅 해줘야 하고, 문화도시 같은 사업도 재단이 하기 보다는 여러 파트너들이 굴러갈 수 있는 플랫폼, 매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놓쳐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게 정책의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행정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게 들어가 보면 태생적인 구조에서 오는 서로의 관행들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다.

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자체가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풀어나가면서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역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매개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면서 만들어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보다는 계속 수행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고착적인 모델이 되어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접근들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그런 것들을 깨가는 사업들이 많다. 지금쯤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단을 해내고 존재의 방향을 끄집어내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역하고 재단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만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정선을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권순석:** 일률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은 이런 역할을 하면 좋고, 안되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역,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진단과 재단의 역할 미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수행해가면서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간다던지 뭔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들이 사업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 구조이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역별 시행계획을 만들듯이 기초문화재단들도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있는 곳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지역 진단에 기반을 둔 문화재단의 미션과 역할에 대해서 정립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추미경:** 사실 플랫폼, 생태계 매개체로서의 재단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커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모습에선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는 역할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과에 대한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로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성장하자라는 상생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차원의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각 자치단체의 성과지표를 보면 경영평가가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서비스의 양을 늘렸느냐가 기본 골격이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준다는 것은 소위 문화민주주의시대에도 떨어지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판을 만들어주는냐의 이야기지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서비스의 양이나 종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발굴, 단체의 발굴이던 풍토의 조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강원재:** 재단이 무엇으로 운영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지자체, 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산 등이 풀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책 사업이나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법적인 것으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 광역은 광역



#### IV. 전문가 간담회

하고 광역재단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 있고, 현장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재단 자체의 조직원들과 이 관계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행정과 현장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제도화된 거버넌스가 문화재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단 각각의 직원들은 행정과의 조율,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내는 방식이라든지 현장의 요구들을 정책적으로 다뤄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퍼실리테이터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조직구조 안에서 지시에 의해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순간 자기 완결적인 덩치만 커지고 현장과 정책이 따로 노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을 재단직원들의 재단의 역할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김영현:** 시, 군에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 군정을 만든다. 그럴 때 문화예술 영역이 시정, 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로 위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재단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중요한 시정, 군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낼 때 아예 지역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순환적 고리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재단의 노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재단과 현장이 순환적 관계에서 역할들을 서로 나누고 교류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정되는 조직들이 아니라 자꾸 변화되거나 살아있는 조직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법 등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다. 문화판에서는 기존의 경제적 노동의 구조에서의 고민 말고 문화적구조안에서 인력들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경년:** 코로나19 상황을 맞게 되면서 이전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늘 했지만 지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소소한 사업에서 보더라도, 예컨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매개역량교육을 수행할 때 집체교육방식으로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교육방식에 대해 당연히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재단들은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할 때 관객객 수로 평가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객객 수의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관객객 수를 늘리면 방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연방식, 새로운 공연장 건축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시기동안 시행해왔던 제한관람 방식의 공연, 참여자 수를 나누어 실시하는 교육이나 화상회의, 랜선공연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들이 고민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시도를 해야 할 것인가. 재단들이 고민하고 창조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방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을 포함하여 시, 구, 광역에서 정책을 만들 때 문화재단이 참여하여 명백한 파트너십이 작동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년이 된 부천문화재단을 더듬어 보면 완전한 정책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과 시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기획과 실행을 함으로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계기점을 통해 정책적 파트너십의 명실상부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물론 재단들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계기점을 만들자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있다. 법이 있을 때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지역문화 협력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런 조직을 잘 활용, 적극적으로 역할 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조직을 계속 만들면 이런저런 오해도 생기지만, 논의의 자리가 있으면 성장의 계기도 마련된다고 보며, 민간 단위에서는 끊임없이 작든 크든 시민주체의 조직을 '발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민간단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면 좋겠다. 지역문화재단,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진흥원은 시민주체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문체부 등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예산을 만들면 좋겠다.

#### 다섯 번째 키워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 .....

**권순석:** 단위사업별 접근보다는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미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방향이다. 이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역상황에 맞는 기초문화재단의 미션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역에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들을 문화부랑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에서 정책 사업비를 별도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진도 필요하다. 그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수용되어 지지 않으면 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의회, 언론, 중앙부처 등 문화재단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등 일종의 캠페인이나 환기하는 사업들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실행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단계를 같이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과제로 정리해보았다.

**강원재:** 지자체, 재단 같은 경우 상황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설립된 이유들도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유형구분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재단의 유형들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맞게 재단들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수도 있다. 영등포는 영등포대로의 고민들로부터 출발하여 지금의 영등포 문화재단이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지역과 공유하면서 지역 현장 파트너들과 하나씩 실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기엔 무책임하니까 유형화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 밀착형이나 공공의 정책협력형으로 가는 재단, 또 축제 아니면 문화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형 재단 등으로 구분을 해주면서 거기에 맞는 가이드는 무엇인가 이렇게 대안이 나오면 될 것 같다.

**권순석:** 지금 말씀에 굉장히 동의한다. 그런 사람들과 재단을 어떻게 지지하고 환대해 줄 것인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라면 그런 지지를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지를 사실 단적으로 생각했다. 부천에서 웹진발행을 하는 것을 보면 부천정도에서 다루는 사례라면 어떤 면이든 유의미하니까 다루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널리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지지 역할이 된다. 강원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나가는 역할만 잘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나 토대, 환경들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웹진의 사례들, ‘지역의 트러블메이커는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기획이나 연작으로 나가도록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편집의 의도나 방향 같은 것들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제도나 시스템적인 것 보다는 사람에 방점을 찍어서 그런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자체를 과제로 만들어 보는 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강원재:** 지금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 공통의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정책 사업이든 연구 사업을 가져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노동문제, 임금문제가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이 되는 구조를 또 만들어 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쉽지 않은 문제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웹진, 사람 발굴, 연구사업, 행사, 교육 사업 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실행해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조직이 되지 않고도 하나의 노동문제를 같이 다뤄가는 워킹 그룹 등의 방식을 같이 담아낼 때 현실 가능한 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19  
지역문화재단  
이슈 트렌드 분석



# V.부 록

- 지역문화재단 현황자료 -

## V. 부 록

연번	시도	시군구	재단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1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화재단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	T) 033-250-5801	www.cccf.or.kr
2	강원도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원주시 서원대로331 치악예술관 지하층	T) 033-763-9114 F) 033-763-9631	www.wcf.of.kr
3	강원도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강릉시 강경로 2021번길 9-1 명주예술미당	T) 033-647-6800 F) 033-647-6801	www.gncf.or.kr
4	강원도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24	T) 033-375-6353 F) 033-374-6353	www.ywcf.or.kr
5	강원도	평창군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90-24, 2층	T) 033-336-7107 F) 033-336-7106	www.artpc.co.kr
6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T) 033-560-3011 F) 033-563-2090	www.jacf.or.kr
7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문화재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T) 033-460-8900 F) 033-461-0378	www.injeart.or.kr
8	강원도	홍천군	홍천문화재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792	T) 033-435-5813	www.hccf.or.kr
9	강원도	횡성군	횡성문화재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문화예술회관 2층	T) 1522-1099	www.hscf.or.kr
10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문화재단	강원도 태백시 변영로 220	T) 033-553-6900	예정
11	강원도	속초시	속초문화재단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155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속초문화재단	T) 033-636-0664	예정
12	경기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T) 031-260-3300 F) 031-260-3399	www.yicf.or.kr
13	경기도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T) 032-320-6300 F) 032-326-6929	www.bcf.or.kr
14	경기도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재단법인고양 문화재단 고양어울림누리	T) 1577-7766 F) 031-960-0717	www.artgy.or.kr
1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	T) 031-828-5841 F) 031-828-5809	www.uac.or.kr

연번	시도	시군구	재단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16	경기도	하남시	하남문화재단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125 (덕풍동) 하남문화예술회관	T)031-790-7979 F)031-790-7924	www.hnart.or.kr
17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T)031-8015-8100 F)031-8015-8129	www.hcf.or.kr
18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아탑동 757)	T)031-783-8000 F)031-783-8120	www.snart.or.kr
19	경기도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6번길 16 (안양동)	T)031-687-0500 F)031-689-5000	www.ayac.or.kr
20	경기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T)080-481-4000 F)031-481-4019"	www.ansanart.com
21	경기도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남창동 14) 수원문화재단	T)031-290-3600 F)031-290-3520	www.swcf.or.kr
22	경기도	오산시	오산문화재단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100	T)031-379-9900 F)031-379-9919	www.osan.go.kr/arts
23	경기도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산본동)	T)031-390-3543 F)031-395-3585	www.gunpocf.or.kr
24	경기도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T)031-996-4814 F)031-996-5655	www.gcf.or.kr
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T)02-2621-8800	www.gmcf.or.kr
26	경기도	여주시	여주세종문화재단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04-3 여주시도시안전 정보센터 1층	T)031-881-9690 F)031-881-0211	www.yjcf.or.kr
27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문화재단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남부문예회관, 2층	T)031-8053-3523	예정
28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문화재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81	T)055-268-7911 F)055-268-7992	www.cwcf.or.kr
29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7, 3층	T)055-835-6492~7 F)055-833-9351	www.sccf.or.kr
3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문화재단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T)055-320-1234 F)055-320-1219"	www.ghcf.or.kr

## V. 부 록

연번	시도	시군구	재단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3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문화예술재단	경남 거제시 장승로 145	T) 055-680-1000 F) 055-681-4077	www.geojeart.or.kr
32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문화재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112, 밀 양아리랑아트센터	T) 055-359-4500 F) 055-359-4504	www.mycf.or.kr
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T) 055-940-8460 F) 055-940-8459	www.gccf.or.kr
34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문화재단	경주시 알천북로 1 경주예술의전당	T) 054-748-7721 F) 054-760-7479	www.gjfac.or.kr
35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문화관광재단	경북 영주시 대학로 77, 148아트스퀘어	T) 054-639-3792 F) 054-633-0152	www.yctf.or.kr
36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T) 054-874-0101 F) 054-874-0509	www.cctf.or.kr
3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우리정신 문화재단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55	T) 054-370-7300 F) 054-371-9954	www.cdws.or.kr
38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문화재단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T) 054-289-7999 F) 054-274-6830	www.phcf.or.kr
39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축제관광재단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 영양축제관광재단	T) 054-683-2591 F) 054-683-7301	www.yftf.kr
40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축제관광재단	안동시 육사로 239 (운흥동)	T) 054-840-6398 F) 054-852-9230	www.aftf.or.kr
41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문화관광재단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T) 054-380-7353	예정
42	대구 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대구 중구 경성감영길 176	T) 053-661-2331 F) 053-661-2339	www.djdrcf.or.kr
43	대구 광역시	동구	대구동구문화재단	대구 동구 효동로 2길 24	T) 053-230-3303 F) 053-230-3320	www.dgdgcf.or.kr
44	대구 광역시	수성구	수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T) 053-668-1500 F) 053-668-1509	www.sscf.or.kr
45	대구 광역시	달서구	달서문화재단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T) 053-584-9714 F) 053-584-9716	www.dscf.or.kr
46	대구 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T) 053-659-4292 F) 053-715-1289	www.dsart.or.kr
47	대구 광역시	북구	대구행복북구 문화재단	대구 북구 구암로 47(관음동)	T) 053-320-5120 F) 053-327-1553	www.hbcf.or.kr



연번	시도	시군구	재단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4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1층	T) 051-512-3455 F) 051-512-3453	www.gjfac.org
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	T) 02-6203-1152 F) 02-6499-0371	www.jfac.or.kr
50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문화재단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7 (홍인동 131)	T) 02-2234-0611	www.caci.or.kr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문화재단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9	T) 02-2204-7501 F) 02-2299-6449	www.sdfac.or.kr
5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2길 4	T) 02-2038-4901 F) 02-927-9509	www.sbculture.or.kr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0길 28	T) 02-3274-8500 F) 02-3274-8599	www.mapoartcenter. or.kr
5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24	T) 02-2029-1736 F) 02-2029-1706	www.guroartsvalley. or.kr
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T) 02-2670-4020 F) 02-2068-9496	www.ydpcf.or.kr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재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T) 02-6712-0514 F) 02-3447-0429	www.gfac.kr
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심산기념문화센터내 1층	T) 02-3477-2650 F) 02-3476-5678	www.seochocf.or.kr
5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3길 43, 305호 (도봉구청지원 센터, 창동)	T) 02-908-2900 F) 02-908-3400	www.dbfac.or.kr
5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85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강북문화재단	T) 02-994-8457 F) 0507-0333-0363	www.gbcbf.or.kr
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재단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16 은평문화예술회관 1,2층 은평문화재단	T) 02-351-3736 F) 02-351-3332	www.efac.or.kr
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3층 금천문화재단	T) 02-809-8240 F) 02-809-8239	www.gcfac.or.kr
6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재단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나루아트센터 내	T) 02-2049-4700~1 F) 02-2049-4709	www.naruart.or.kr

## V. 부 록

연번	시도	시군구	재단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63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T) 02-2127-5245	www.facebook.com/dfacorkr
64	서울 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93-1	T) 070-7204-3252	www.idfac.or.kr
65	서울 특별시	양천구	양천문화재단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	T) 02-6289-3002 F) 02-6289-3009	www.yfac.kr
66	서울 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1 노원문화예술회관	T) 02-2289-3411 F) 02-935-4659	www.nowonart.kr
67	서울 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재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T) 02-828-5700 F) 02-828-5810	www.gwanakcullib.seoul.kr
68	서울 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재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T) 02-2147-2825	예정
69	서울 특별시	강동구	강동문화재단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70	T) 02-440-0500	예정
70	울산 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로 288번길20	T) 052-226-1999 F) 052-276-8448	www.uwcf.or.kr
71	인천 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T) 032-500-2013 F) 032-500-2160	www.bpcf.or.kr
72	인천 광역시	인천서구	인천서구문화재단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4층 서구문화재단 (심곡동 경인빌딩)	T) 032-567-1160 F) 032-567-1165	iscf.kr
73	인천 광역시	인천시	연수문화재단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	T) 070-4169-6466	예정
74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문화재단	영암군 영암읍 기찬맨드로 42	T) 061-470-2799 F) 061-471-8502	www.yamunhwa.or.kr
75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문화재단	전남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5	T) 061-245-8833 F) 061-245-8885	www.mpcf.or.kr
76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75	T) 061-383-8241 F) 061-381-6896	www.dycf.or.kr
7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6	T) 061-434-7999 F) 061-434-4999	www.gangjin.or.kr
78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문화재단	전남 순천시 저전길9번지	T) 061-746-2900	www.cfsc.or.kr

연번	시도	시군구	재단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79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교동, 전주한벽문화관)	T) 063-283-9225 F) 063-283-9228	www.jjcf.or.kr
8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문화재단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28-4	T) 063-843-9911 F) 063-843-9912	www.iscf.or.kr
81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T) 063-262-3955 F) 063-262-3956	www.wfac.or.kr
8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T) 063-560-2448	예정
83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	T) 041-540-2550 F) 041-534-2633	www.culture.asan. go.kr/_culture/new
84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T) 041-900-0211~2 F) 041-900-0213	www.cfac.or.kr
85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문화재단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읍내동)	T) 041-350-2911 F) 041-352-6896	www.dangjinart.kr
86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문화재단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6-6 (합정리 575)	T) 041-635-6982	www.baekje.org
87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 2층)	T) 043-219-1006 F) 043-219-1234	www.cjculture.org
88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중앙문화재단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T) 043-850-7981 F) 043-851-7983	www.cjcf.or.kr
8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축제관광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항간로 122	T) 043-745-8912	www.ydft.kr
90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문화재단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T) 043-645-4998 F) 043-645-4996	www.jccf.or.kr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